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뉴스 진행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분석

2017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백인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어수연

뉴스 진행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분석

Analysis of the Hairstyle of the Female News Anchor  
according to her Costume

2017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백인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어수연

뉴스 진행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분석

Analysis of the Hairstyle of the Female News Anchor  
according to her Costume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색채학전공

백인영

백인영의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뉴스 진행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분석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뷰 티 색 채 학 전 공

백 인 영

뉴스 진행 전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연출에 있어 의상의 칼라(collar)와 네크라인(neckline)의 형태가 헤어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미지가 연출되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아나운서의 이미지의 형성은 뉴스의 신뢰도와 시청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알아보는 시뮬레이션 착의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설문지를 통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인 남녀를 대상으로 360부의 설문지를 배포 후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 3부를 제외한 357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23.0을 사용 통계처리 하였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카이제곱)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Fisher 검증을 사용하였다.

의상의 칼라(collar)와 네크라인(neckline)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테일러드 칼라(collar)의 의상은 양복의 이미지로 단정하고 점잖은 느낌을 주고 여기에 안정적이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린 업스타일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더해준다 할 수 있는데, 20대에서만 롱 스트레이트를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셔츠 칼라(collar)의 의상은 와이셔츠와 비슷한 형태로 칼라가 목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보여 질 수 있지만 정돈된 깔끔한 미디움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가볍지 않은 단정함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에서 짧은 헤어스타일의 연출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파리웨이 칼라(collar)의 의상은 목에서 칼라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어 다른 칼라와는 다르게 목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장식미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때 헤어의 길이가 짧으면 허전함을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롱 스트레이트와 같이 헤어의 길이를 길게 한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50대 이상에서만 단정한 미디움 스트레이트를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캐스케이드 칼라(collar)의 의상은 칼라 부분에 많은 프릴이 형성되어 있어 목 부분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화려하게 보여 질 수 있다. 미디움 스트레이트나 업스타일과 같이 헤어의 길이가 짧게 보여 지는 스타일이 칼라의 화려함을 절충시켜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연출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에서 짧은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라운드 네크라인(neckline)의 의상은 곡선의 부드러움과 귀여우며 암전한 이미지를 주어 너무 단정하고 격식 있는 헤어스타일은 의상과의 매치에서 조화롭지 못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롱 길이의 헤어로 여성스러우며 친근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데 50대 이상은 미디움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이며 연령대별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브이 네크라인(neckline)의 의상은 앞트임 부분이 깊어 몸이 커 보이거나

과한 노출로 보여 질 수 있으므로 헤어스타일을 앞쪽에서 연출시켜 목 주변의 허전함을 보완하고 가슴으로 부터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에서 통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스퀘어 네크라인(neckline)의 의상은 직선의 네모 느낌으로 딱딱하게 보여 질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미디움 웨이브와 같은 곡선의 헤어 형태가 날카롭고 딱딱해 보이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며 40대를 제외하고 웨이브 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이 네크라인(neckline)의 의상은 얼굴과 가깝게 네크라인이 형성되어 헤어의 길이가 조금만 길어도 답답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솟 스트레이트나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과 같이 턱 선을 넘지 않는 헤어 연출이 적합하며 웨이브의 연출은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 연령층이 간결한 짧은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예전의 아나운서 헤어스타일은 어떠한 의상에서든 깔끔함과 단정함의 상징인 단발이라는 스타일로 고정화되고 의상의 폭 또한 제한적이었지만 현재 이러한 부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의상의 선택도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연출도 자유로워지면서 시청자에게 다양한 이미지로 신뢰도를 어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상과의 조화가 선호도와 많은 부분 매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상호작용하여 조화를 이룰 때, 외적인 부분에서의 신뢰도 있는 아나운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뉴스 진행 여성 아나운서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지만 현재 아나운서의 활동 범위가 다양해진 만큼 예능이나 시사교양, 스포츠 프로그램 부분에서의 의상 디테일과 헤어스타일 연관성 분석과 의상 컬러(color)와의 연관성 연구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아나운서의 이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스타일을 체계화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주요어】** 여성 아나운서, 의상, 헤어스타일, 네크라인(neckline), 칼라(collar)

# 목 차

I. 서 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II. 이론적 배경 .....	4
2.1 뉴스 프로그램과 아나운서 .....	4
2.1.1 뉴스 프로그램의 개념과 특징 .....	4
2.1.2 아나운서의 개념 및 역할 .....	5
2.2 아나운서 이미지 지각 .....	8
2.2.1 이미지 지각 .....	8
2.2.2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	9
2.2.3 의상에 따른 이미지 .....	13
2.2.4 아나운서 이미지 변화 .....	17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22
3.1 연구 대상자와 자료수집 .....	22
3.2 자극물 설정 .....	22
3.2.1 실험 모델 선정 .....	22
3.2.2 헤어스타일의 형태 선정 .....	23
3.2.3 의상 선정 .....	23
3.3 설문지의 구성 .....	25
3.4 분석방법 .....	25
IV. 연구결과 .....	26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6
4.1.1 뉴스 시청에 관한 내용 분석 .....	27
4.1.2 아나운서 외적 이미지의 중요 요인 .....	31
4.2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 선호도 .....	34
4.3 여성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	37
4.4 여성 아나운서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	41
 V. 결 론 .....	57
 참 고 문 헌 .....	61
 부    록 .....	65
 ABSTRACT .....	71

## 표 목 차

[표 2-1] 아나운서 스타일의 변천사	21
[표 3-1] 헤어스타일 표본 이미지	23
[표 3-2] 네크라인 및 칼라형태 일러스트	24
[표 3-3] 방송사별 칼라(collar) 빈도수	24
[표 3-4] 방송사별 네크라인(neckline) 빈도수	25
[표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26
[표 4-2] 연구 대상자의 뉴스 시청에 대한 일반적 특성	28
[표 4-3] 연령대별 1일 평균 뉴스 시청 시간대	30
[표 4-4] 아나운서 외모 형성의 중요 요인	31
[표 4-5] 연령대별 아나운서 외모 형성의 중요 요인	33
[표 4-6]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 선호도	34
[표 4-7] 연령대별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 선호도	35
[표 4-8] 여성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38
[표 4-9] 연령대별 여성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40
[표 4-10] 테일러드 칼라의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42
[표 4-11] 셔츠 칼라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44
[표 4-12] 파리웨이 칼라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46
[표 4-13] 캐스케이드 칼라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48
[표 4-14] 라운드 네크라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50
[표 4-15] 브이 네크라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52
[표 4-16] 스웨어 네크라인 의상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54
[표 4-17] 하이 네크라인 의상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56

## 그 림 목 차

[그림 3-1] 실제 아나운서의 표본 이미지 .....	22
[그림 4-1] 연령대별 빈도 분석 .....	26
[그림 4-2] 1일 평균 뉴스 시간대 .....	28
[그림 4-3] 연령대별 1일 평균 뉴스 시청 시간대 .....	30
[그림 4-4] 아나운서 외모형성의 중요 요인 .....	31
[그림 4-5] 연령대별 아나운서 외모 형성의 중요 요인 .....	33
[그림 4-6]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 선호도 .....	34
[그림 4-7] 연령대별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 선호도 .....	35
[그림 4-8] 여성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	38
[그림 4-9] 연령대별 여성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	40
[그림 4-10] 테일러드 칼라의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	42
[그림 4-11] 셔츠 칼라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	44
[그림 4-12] 파리웨이 칼라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	46
[그림 4-13] 캐스케이드 칼라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	48
[그림 4-14] 라운드 네크라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	50
[그림 4-15] 브이 네크라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	52
[그림 4-16] 스퀘어 네크라인 의상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	54
[그림 4-17] 하이 네크라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	56

# I.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뉴스는 새롭고 유익하며 재미있는 소재여야 한다는 원칙이 통용되고 있으며 언론 매체에 담겨지는 현실적이며 공공적인 정보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나 사실을 대중매체를 통해 제시하는 활동을 보도라고 하며 그러한 과정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을 뉴스라고 한다.

뉴스 진행 아나운서는 방송을 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체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방송사의 이미지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한다.<sup>1)</sup> TV 뉴스 앵커의 이미지가 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영혜의 연구<sup>2)</sup>에서 앵커의 외적 이미지가 더 매력적일수록 수용자가 많아지게 되고 두 명의 앵커의 능력이 비슷할 경우 시청자가 어떤 앵커를 선택할 것인가는 비언어적 요소들이 대중의 호의성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남자 진행자에게는 신뢰성을 여자 진행자에게는 스타일(외모)을 절대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수정의 연구 결과에서도 앵커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가 스타일, 두 번째가 전문성, 그 다음이 인간미 때문이라고 답하여 스타일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sup>

강진희<sup>4)</sup>의 연구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 메이크업, 의상, 헤어는 상체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뉴스 진행 아나운서에게 다른 프로그램보다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고 하였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복으로 착용자의 개성과 매력을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1) 이현정.(2015). 「아나운서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11.

2) 이영혜.(2005). 「TV뉴스 앵커의 이미지가 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48.

3) 김수정.(2001). 「채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앵커의 속성」,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45.

4) 강진희.(2015). 「아나운서의 뉴스·예능·교양 메이크업 분석」,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20-21.

하고 헤어는 개성 표출 방식의 한 방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지 연출에 있어 자신을 표현할 의복을 선택하고 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링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의복과 헤어스타일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의복의 여러 요소 중 헤어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칼라(collar)와 네크라인(neckline)은 헤어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sup>5)</sup> 헤어의 연출에 앞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칼라(collar)와 네크라인(neckline)의 형태가 헤어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아나운서의 이미지의 형성은 뉴스의 신뢰도와 시청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김수정<sup>6)</sup>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아나운서의 의상의 칼라(collar) 및 네크라인(neckline)의 형태와 헤어스타일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여 아나운서 이미지 선호도가 뉴스의 신뢰도와 시청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차 후 여성 아나운서들의 헤어스타일 및 코디네이션(coordination)의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려고 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뉴스 진행 여자 아나운서의 이미지는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채널 선택과 관심도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어스타일은 TV프로그램 진행 여자 아나운서의 이미지를 시각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도구이며,<sup>7)</sup> 의상 또한 뉴스 보도내용과 개성 반영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동시에 헤어스타일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뉴스 진행 여성 아나운서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는 현재,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메이크업 등 외적인 부분에 있어 시청자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후 활용할 방향을 제시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5) 김효주.(2013). 「네크라인 및 칼라의 변화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적 관련성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6-17.

6) 김수정.(2001).전계논문, p.45.

7) 김정숙.(2009). 「뉴스와 예능 프로그램 여자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특성」, 중앙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7.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뉴스 프로그램의 특징과 아나운서의 역할, 아나운서 외적 이미지 지각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통해 정리 하였다.
2. 연구에 맞는 실험모델을 선정하고 연구의 취지에 맞는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합성한 자극물을 설계하였다.
3. 설계한 자극물의 이미지를 기초로 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4. 설문지를 통계처리하고 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비교,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2.1 뉴스 프로그램과 아나운서

#### 2.1.1 뉴스 프로그램의 개념과 특징

뉴스는 정보라는 개념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실들은 보도의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시하는 활동을 보도라고 하며 그러한 과정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을 뉴스라고 한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기자에 의해 취재되고 글로 작성된 뒤,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TV뉴스라 하겠다.<sup>8)</sup>

뉴스는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뉴스가 되는 것도 아니다. 매체 종사자인 기자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인간적 감성에 소구하는 사안이나 사건을 선택하여 주목을 끌거나 흥미를 유발 시키도록 구성하여 이를 바탕에 두고 작성한 것이다. 뉴스는 일상적인 관습이나 질서에 대하여 그 테두리 밖으로부터 침투하는 이질적인 정보로서 관습·질서에 입각한 일상적인 영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보와는 구별 된다. 일반적으로 뉴스는 새로운 소재로 유익하며 흥미로워야 한다는 원칙이 통용 되고 있으며 언론 매체에 담겨지는 현실적이며 공공적인 정보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공공적이란 의미는 사적이 아닌 공적이고 공개적이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중요성이 있게 여겨지는 것을 뜻한다고<sup>9)</sup> 볼 수 있다.

TV 뉴스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의 활자와 달리 영상과 음향을 기본 수단으로 하고 있다. 둘째, 뉴스 프로그램 종사자는 고도의 기술·지식을 갖춘 개체지만 전체의 한 부분으

8) 이선화.(2016). 「TV 뉴스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 스타일링 분석」,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22-40.

9) 이소빈.(2013). 「방송사 뉴스 진행자의 이미지가 뉴스 채널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7.

로서 의미를 가지는 작업으로 노동 집약적이다. 셋째, 뉴스 포맷과 방송 시간에 따라 수용자에게 전해지는 전달 효과가 다르다. 이 의미는 포맷과 내용이 시청자의 계층이나 연령에 따라 달라야 하고 편성되는 시청 시간대에 따라서도 달라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은 감정과 개성이 있는 인물인 뉴스 진행자에 의해 전달된다. 신문 뉴스는 활자에 의해 개성이 배제되지만 TV뉴스 프로그램은 전달자의 음성, 용모, 태도에 의해 개성화 되는 감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sup>10)</sup> 다섯째, TV뉴스 프로그램은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보도와는 달리 속보성과 즉시성, 편재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뉴스 프로그램은 일상성, 사실성, 공익성,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 디지털미디어, 인터넷 등의 방송 전송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미디어 환경의 경쟁이 심화 되고 방송사들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뉴스수용자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수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슈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뉴스 공급자에서 점차 뉴스 수용자 중심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sup>11)</sup>

### 2.1.2 아나운서의 개념 및 역할

뉴스 진행자를 지칭하는 말에는 정해진 뉴스 시간에 편집된 뉴스를 순서에 입각해 읽기만 하는 사람인 ‘아나운서’, 방송에서 뉴스를 전달하며 설명을 덧붙이고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인 ‘뉴스캐스터’, 뉴스 소재에 있어 기자들의 심층 보도를 유도하고 해설 및 자신의 논평을 곁들이는 사람인 ‘앵커’가 있다. 아나운서는 사전적 의미로 극장, 경기장, 광장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전달 사항을 알리는 사람을 지칭한다.

아나운서는 영어로는 전달자, 통보자, 방송사에서의 방송원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 에서는 방송의 전파가 발사되면서 아나운서라는

---

10) 신영일.(2009). 「뉴스앵커와 연예오락프로그램진행자의 공신력에 대한 인식차이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31.

11) 김정은.(2003). 「국내 TV 뉴스에서 활용되는 정보원 특성에 관한 연구:KBS,MBC,SBS 저녁종합뉴스 내용분석」, 연세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16.

직종이 방송사의 뉴스 전달자, 프로그램 진행자로 자리를 잡았다. 구체적으로 아나운서는 방송사의 모든 프로그램 진행자로 앵커, 뉴스캐스터, 스포츠캐스터, 교양·오락MC, 디스크자키, 리포터 등을 포괄 하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아나운서는 그 사전적 정의처럼 진정한 방송원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한국 언론재단의 매스컴 용어 사전에서는 아나운서를 협의의 개념으로 ‘뉴스전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광의의 의미로서는 방송에 출연하는 비 연예계 인사로 정의 하고 있다.

한국의 아나운서는 TV와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스포츠와 각종 행사의 의식 중계방송, 인터뷰, 토론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아나운서는 MC, DJ, 리포터, 나레이터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sup>13)</sup>

아나운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 진행자의 역할이다. 아나운서 입사 시험 단계 중 실기 시험에서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뉴스를 읽는 능력이다. 뉴스 진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sup>14)</sup> 둘째, MC의 역할이다. 교양, 오락, 시사, 대내외의 행사 등의 진행자로서 TV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호스트이자 프로그램 속 인물, 출연자들과 끊임없는 대화가 오가는 인터뷰와 출연자, 시청자, 방청객들에게 내용을 전달 해주는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 셋째, 리포터와 현장 중계자의 역할이다.<sup>15)</sup> 프로그램의 전체적 진행을 담당하는 MC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채워나가는 리포터, 현장에서 다양한 사실과 느낌을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스포츠 캐스터의 역할이다. 아직까지는 아나운서의 전문분야로 인식 되고 있는 영역으로서 각종 스포츠 종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표현력,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낭독자의 역할이다. 흔히들 성우들의 영역만으로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 아나운서가 가진 개성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12) 이윤재.(2014). 「공중파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방송인의 직무만족 및 상생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박사학위 논문, pp.8-16.

13) 장은영.(2017). 「TV프로그램 별 여성 아나운서 이미지에 대한 시청자 선호도 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8.

14) 이동훈.(2016). 「텔레비전 뉴스의 남녀 앵커 역할 차이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24.

15) 정선희.(2002). 「아나운서의 역할 변화에 관한 직종별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10-12.

프로그램에 맞는 내레이션을 한다. 이 부분은 연기력과 감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여섯째, 라디오 DJ역 할이다. 과거 아나운서의 태동이 라디오에서 시작된 만큼 라디오 진행은 아나운서의 고유 영역이다.<sup>16)</sup> 이러한 아나운서의 역할들 중에서 아직까지 시청자에게 가장 크게 인식되는 부분은 뉴스 진행자로서의 역할이며, 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만족감을 느낀다. 뉴스 프로그램이 최근 들어 더욱 다양화되고 경쟁적인 시대를 맞게 되면서 TV뉴스 프로그램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에 있어 뉴스 프로그램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가 하는데서 전문적인 뉴스 진행자의 존재가 부각 되었다.

뉴스 캐스터들은 시청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그들의 이해와 판단에 도움을 주며 때로는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통해 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역할 담당자로서 뉴스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뉴스 진행자는 TV라는 영상매체를 이용 뉴스를 진행하는 인물로, 수용자에게 자신의 외모를 드러낸 상태에서 글과 같은 간접적 수단이 아닌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다채널 시대인 현재도 프로그램의 장르와 그 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 진행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종 중에 하나인 것이다. 다양한 방송 장르에서 진행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보도, 교양, 오락 등 전영역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은 주로 아나운서의 몫이다.

아나운서는 방송의 최 일선에 나가 방송을 통해 방송사를 대표하고 방송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그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방송에 있어 아나운서는 방송국의 대변인이며 상징이고 최 일선에서 시청자와 마주하며 방송을 이끌어 가는 주역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전달하고자 하고 있는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출연자와 시청자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이며 방송의 실체로서 수용자에게 가장 크게 인지되는 인격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대표 하는 것에 나아가 방송사를 대표하고 또한 전 국민을 상대로 책임을 지기도 한다.<sup>17)</sup>

---

16) 이동훈.(2016). 전계논문, p.22.

17) 정선희.(2002). 전계논문, p.7.

## 2.2 아나운서의 이미지 지각

### 2.2.1 이미지 지각

이미지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으로 ‘심상’, ‘영상’, ‘인상’으로 순화하고 이미지를 어원의 라틴어로 ‘이마고(imago), 표상모방’, ‘이미토르(imitor), 모방하다’, 재생하다 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sup>18)</sup> 이미지는 한 감각대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지된 모든 정보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정보처리의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하나의 형상이며, 하나하나의 속성을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형상이다.

이미지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상심, 상영상 등으로 표현되지만 그 이상의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를 포함 한다. 이미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변화하며 사람에 따라 이미지는 대상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미지에는 주어진 자극에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의 상호작용 및 개인각자의 생활환경에 의한 연상이나 감정 등 복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각되어서 어떠한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형체, 형상, 감각적 표현, 즉 실제의 시각적 표상으로 나타날 때 이를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9)</sup>

이미지는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내적 이미지는 개인의 내면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의식, 정서를 의미하고,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상태를 말한다. 또한, 개인에 맞는 내적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은 개발하고 부각시키며, 단점은 수정하고 보완하여 타인에 대한 예의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미지를 연출해야 한다. 외적 이미지는 얼굴, 신체적, 의상 등의 표현적 요소로서 대인

18) 김윤미.(2010). 「영화 포스터 이미지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지각 : 배우 연상 이미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경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18-20.

19) 김종숙.(2011). 「웨딩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

지각의 후광 효과로 작용하여 개인의 능력과 같은 다른 특징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개인의 외적 이미지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공으로 연결 될 것이다. 또한 현대는 이미지 연출의 시대라고 할 만큼 시각적으로 보이는 전체적인 외모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sup>20)</sup>

이미지 지각이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자극들을 받아들여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말하며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이는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지각 과정에서 지각 대상이 사람일 경우를 대인지각이라고 한다. 대인지각은 그 대상 인물의 심리적 소질에 관한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 하며 심리적 소질을 지각하게 하는 정보나 단서는 타인의 언어, 신체, 동작, 안면, 표정, 비언어적인 표현 등이 있다.<sup>21)</sup>

## 2.2.2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 2.2.2.1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헤어스타일 이미지 지각은 기본적인 헤어디자인 요소인 머리의 길이, 형태, 컬러 등에 대한 지각이 통합된 전체적인 영상이며 지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인상이 형성 된다고 할 때 얼굴의 어느 한 부분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하나의 큰 윤곽으로 지각되며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헤어스타일도 하나의 요소로서 얼굴 윤곽 등 모든 요소들이 전체적인 느낌으로 지각되어 이미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헤어스타일로서 그 사람의 나이와 직업, 취향, 성품, 경제수준까지도 알 수 있고 의복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

20) 방해주.(2012). 「효과적인 취업 이미지 메이킹 적용연구 –대구광역시 20대 남학생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15.

21) 안혜연.(2010). 「TV 뉴스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 스타일링 분석」, 한양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7-10.

22) 이효숙.(2004). 「패션 이미지에 따른 의복 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 경성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24.

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형태, 질감, 색상,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지는데 헤어스타일도 디자인 요소인 형태, 색채, 질감, 색상, 장식등을 통하여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 대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헤어스타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중 어느 것을 변화시켰을 때 자신이 더 달라져 보이느냐는 질문에 의복이 33.55%, 헤어스타일이 66.45%로 나타나며 헤어스타일이 사람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sup>23)</sup>

여자 아나운서의 일반적 이미지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짧은 헤어스타일 경우 앞머리가 있을 때 세련미, 친밀감 높았고 앞머리가 없을 때는 신뢰성, 전문성이 높게 평가 되었다. 중간 직모일 때 앞머리가 있을 때 친밀감, 신뢰성, 앞머리 없을 때는 신뢰성, 전문성이 높게 평가 되었다. 중간 웨이브의 경우 앞머리가 있을 때 친밀감, 세련미가 앞머리가 없을 때는 친밀감, 교양미가 높게 평가 되었다. 긴 직모의 스타일에서 앞머리가 있을 때는 친밀감, 세련미 높게 평가 되었고 앞머리가 없는 경우는 친밀감과 전문성이 높게 평가 되었다.<sup>24)</sup>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는 크게 길이와 웨이브의 유·무, 색상, 형태 등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이미지를 분류한 연구와 이미지를 평가한 형용사로 이루어졌다.<sup>25)</sup>

헤어의 길이에 따라 이미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쇼트는 모던, 매니시, 댄디, 캐주얼, 소피스티케이트 이미지, 미디엄은 클래식, 엘레강스 이미지, 롱은 내추럴, 로맨틱 헤어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헤어스타일 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길이, 웨이브, 컬러(color) 순으로 나타났다.<sup>26)</sup>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지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라

23) 나광주.(1989).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 광주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29.

24) 김정숙.(2009). 전계논문, p.52.

25) 손지연.(2016).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24.

26) 이효숙.(2004). 전계논문, pp.5-19.

운드, 브이, 보우트, 스퀘어 하이 네크라인의 의상에서 긴 웨이브 헤어스타일이나 단발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개성적, 여성적 이미지가 높게 평가 되었고, 앞머리를 내린 긴 직모 스타일과 단발 직모 스타일에서는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었다.<sup>27)</sup>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의 의상에서는 긴 웨이브나 단발웨이브에서 여성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고, 단발 직모에서는 단정한 이미지가, 커트머리에서는 지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브이 네크라인 의상에서도 라운드 의상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보우트 네크라인 의상에서는 긴 웨이브가 개성적 이미지로 나타났고, 단발 직모는 단정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스퀘어 네크라인 의상에서는 긴 웨이브가 여성적 이미지로 나타났고, 단발 직모에서는 단정하며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하이 네크라인의 의상에서는 단발 직모에서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가 나타났고, 커트에서는 지적인 이미지가 나타났다.<sup>28)</sup>

이미지별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내추럴, 에스닉, 엘레강스, 모던, 로맨틱의 5가지로 분류하고, 내추럴은 청순하고 자연스러운, 에스닉은 토속적이며 야성적인 스타일, 엘레강스는 고상하고 우아한, 로맨틱은 컬로 인한 볼륨감과 섹시하고 낭만적인 헤어스타일이라고 하였다.<sup>29)</sup>

#### 2.2.2.2 헤어스타일의 종류

긴 길이 헤어(long-hair)에서 아우트라인은 Nape Point 기준 아랫방향으로 25cm 이상을 말하며,<sup>30)</sup> 자연스럽고 편안한 부드러운 이미지가 연출된다. 여기에 웨이브의 굽기에 따라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주기도 하며 내추럴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sup>31)</sup>

27) 김효주.(2013). 「네크라인 및 칼라(collar)의 변화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적 관련성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6-17.

28) 이영미, 서미아.(1998). 네크라인과 헤어스타일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학회지』, 제6권 제3호, p.628.

29) 정옥희.(2003). 「이미지별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48-51.

30) 권오혁.(2010).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모발길이의 수치화가 커트교육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박사학위, p.33.

중간 길이(medium-hair) 헤어는 아우트라인 Nape Point 기준 아랫방향으로 15Cm를 말하며,<sup>32)</sup> 원숙하고 중후한, 단정한 이미지의 스타일로 유행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는 클래식한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고전적인 이미지로 보수적인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짧은 길이(short-hair)의 헤어는 아우트라인은 Nape Point 기준 아랫방향으로 5Cm를 말하며,<sup>34)</sup> 웨이브를 주어 활발하고 생동감 있는 발랄함을 표현 할 수도 있고, 길이를 더욱 짧게 하여 캐주얼하며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다.<sup>35)</sup> 웨이브가 없는 스트레이트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이미지를 주고 모던하며 도회적인 연출에 효과적이다.

업스타일(up style-hair)을 토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이프 라인(neape-line)과 정중선이 교차하는 점에 토대가 형성된 업스타일은 쉽게 쪽머리를 연상할 수 있는데, 안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단아한 이미지를 준다. 하지만 잘못 연출하면 고집스러워 보이거나 노숙해 보일 수 있다.<sup>36)</sup>

턱과 귀 앞을 연결하고 귀의 윗점을 연결한 정중선의 점에 토대를 형성시켜 연출한 업스타일은 결혼식에서의 신부머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려보이며 귀여운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여성스러운 편안함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sup>37)</sup>

---

31) 하관수.(2012).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인식도 및 실태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

32) 권오혁.(2010). 전계논문, p.32.

33) 박미애.(2009). 「개인 이미지에 따른 연예인 헤어스타일의 선호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1.

34) 권오혁.(2010). 전계논문, p.31.

35) 하관수.(2012.).전계논문, p.7.

36) 이소영.(2011). 「토대의 위치 변화에 따른 업스타일 이미지와 세대별 선호도」, 광주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

37) 박미애.(2009). 전계논문. p.8.

## 2.2.3 의상에 따른 이미지

### 2.2.3.1 의상에 따른 이미지 지각

의상 이미지란 의상이 전달해 주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의상의 형태, 색, 재질 등에 따라 전달되어지는 이미지가 다르게 표현되며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의상의 인지도와 선호하는 의상의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의상을 접할 때 나타나는 반응인 느낌은 의상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sup>38)</sup>

같은 칼라의 넓이에서 칼라의 형성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칼라의 각도가 작으면 활동적인 스포츠 웨어나 셔츠칼라 블라우스에 적합하고, 칼라형성 각도가 크면 격식을 차리는 정돈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교복이나 유니폼 칼라에 적합하다. 칼라의 넓이가 넓은 의상은 안정감 있는 점잖은 이미지로 수트나 오피스 룩의 제작에 활용하면 효과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의복을 통한 대인지각은 학습되어온 의복의 속성에 영향을 받으며 관찰자의 과거 경험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즉 지각의 대상이 되는 의복에 따른 여러 속성들(의복유형, 재질, 색상 등)과 착용자의 체형, 얼굴이 주는 인상, 성별, 연령 등 지각대상자에 의한 요소가 기본이 된다. 여기에 판단의 주체인 지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성격, 심리적 특성, 성별, 연령 등 지각자에 대한 요소와 의복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 등이 더해져 다양한 판단의 결과가 나타난다.<sup>40)</sup>

TV뉴스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 스타일링 분석에서는 앵커 스타일링은 단정한 재킷과 깔끔한 민소매 블라우스의 조화로 파워가 느껴지는 의상으로 나타났고, 기상캐스터 스타일링은 무릎 위 기장의 스커트에 허리라인이 강조되

38) 이명희.(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 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제17권 제 3호, pp.367-368.

39) 안화노.(2009). 「셔츠 칼라 패턴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59.

40) 강승희.(2005).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에 의한 남성 캐주얼웨어 이미지 지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16.

어진 원피스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교통 캐스터는 프란트 패턴 등의 포인트가 돋보이는 세련된 슬림 원피스 스타일, 스포츠 아나운서는 팬츠 아이템을 활용하여 캐주얼함을 살린 의상 스타일로 나타났다.

뉴스 여성앵커의 스타일링은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반듯하고 깔끔한 슈트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며, 앉아서 진행하는 형태가 많으므로 상체 위주의 스타일링이 이루어지는데 재킷에 민소매 블라우스 또는 재킷에 원피스 스타일이 대부분이다. 재킷의 디테일에서 테일러드 재킷과 칼라(collar)리스 재킷이 많은 부분 차지하며, 브이넥 재킷은 조금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sup>41)</sup>

중요현상과 정보를 전하는 뉴스 진행자의 의상으로 클래식한 정장으로 제한하며, 재킷 또는 그 안에 셔츠나 블라우스를 갖춰 입는 스타일이 고정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재킷의 네크라인은 브이 네크라인, 테일러드 네크라인, U 네크라인과 같이 경쾌하고 단순한 것이 적당하며, 목의 윗부분까지 올라오는 차이니즈 칼라, 터틀넥, 보우 칼라는 목 밑을 거북하고 복잡하게 보이게 하므로 피해야 할 의상이다.<sup>42)</sup>

뉴스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형태를 고려해 볼 때 일반 의상과는 달리 상체 위주의 디테일을 얼굴형과 접목하여 얼굴유형과 의복 디테일의 요소인 네크라인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얼굴 유형과 네크라인 유형은 서로 상호 작용하여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얼굴형을 고려한 네크라인의 선정이 심미적인 보완에 있어 중요하다고 하였다. 얼굴형과 네크라인 유형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주므로 같은 얼굴 유형이라고 얼굴형이 조정되어지도록 네크라인의 디자인을 찾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sup>43)</sup>

의상은 하나의 기초 언어로 복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지각에 뒤따르는 정보적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려는 프로그램에 따르는 TV의상의 효과적인 사용에 있어 중요하다고 하였다.<sup>44)</sup>

41) 이선희.(2016). 「TV 뉴스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 스타일링 분석」,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22-40.

42) 김영란.(2001). 「텔레비전 뉴스진행자의 의상디자인에 관한 분석」,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89-91.

43) 김효주.(2014). 전계논문, pp.6-17.

### 2.2.3.2 의상의 칼라(collar) 및 네크라인(neckline)의 종류

칼라는 의상에서 목 부분에 해당하며 여기에 또 다른 천으로 형태를 만들어 장식하는 것을 칼라(collar)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옷깃이라 한다.<sup>45)</sup> 칼라의 형태는 착용자의 얼굴형이나 목둘레, 목 길이, 유행성, 기호 등에 의해 결정되며,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칼라의 넓이와 외곽선의 형태, 스탠드 분량 등을 맞추어 체형의 단점을 커버하거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sup>46)</sup>

의상에서 칼라(collar)는 네크라인에 달려 목 부위 자체를 덮어 주는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디자인으로서 패션성, 기호 등이 강하게 표현되며 의복을 디자인하고 구성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써 의복의 이미지와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롤칼라(collar) 패턴 제도 시 칼라(collar)의 달림선을 결정짓는 제도상의 공가치수 변화에 따라 칼라(collar) 스탠드의 높이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칼라(collar) 폭의 변화와 옷감두께 변화에 따라 칼라(collar) 스탠드 높이의 변화량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sup>47)</sup>

칼라는 의상에서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상의 통일미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얼굴과 인접해 있어 개성표현의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sup>48)</sup> 다양해진 의상 디자인과 함께 칼라의 디자인도 다양한 형태로 이를 부르는 명칭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피터팬 칼라와 같이 동화 속 주인공의 이름이나, 캐스케이드와 같이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한 칼라의 명칭도 있다.

테일러드 칼라는 프랑스 혁명 이후 남자 양복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현재 남자 의상 뿐 아니라 여성 의상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칼라의 직선적인 선은 엄격하고 딱딱한 인상을 주며, 곡선은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또한, 칼라가 좌우 대칭인 것은 의례적이며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군복이나 경찰복과

44) 손지연.(2011). 전계논문, pp.23-26.

45) 김영란.(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복 구성의 부분 변형」, 건국대학교박사학위 논문, p.33.

46) 강순희, 서미아.(2002) 「의복의 입체 구성 : 이론 및 실기」, 교문사, pp.94-98.

47) 최인영.(2017). 「테일러드 재킷 칼라의 형태 변화 연구 : 칼라 스탠드분에 따른 높이의 변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97.

48) 김영자. 「복식 미학의 이해」, 경춘사, p.113.

같은 제복에 많이 쓰이며, 비대칭적인 것은 세련미와 운동감을 주기 때문에 여성의 드레스나 활동성이 강한 스포츠 의상에 많이 쓰인다.<sup>49)</sup> 점잖고 단정한 느낌을 주어 재킷이나 코트 같은 여성의 외의나 캐주얼한 의복에도 많이 사용되는 칼라이다.<sup>50)</sup>

셔츠 칼라는 와이셔츠와 비슷한 형태의 칼라로 와이셔츠 형, 남방 형, 티셔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별로 캐주얼용은 스포티함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정장용은 격식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sup>51)</sup>

파리웨이 칼라는 목둘레에서 많이 떨어져 칼라의 형태가 형성되는 칼라로, 겉옷보다는 여성의 원피스나 블라우스에서 많이 사용되며 여성미가 돋보이는 연출을 할 수 있다.

캐스케이드 칼라는 목둘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과 같은 형상으로 플레어분이 생기는 칼라로, 프릴이나 레이스가 달려 여성복에 많이 사용되며 화려함과 여성스러운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sup>52)</sup>

의상에서 네크라인은 목둘레선을 총칭 하며, 의상을 걸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의상의 요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sup>53)</sup> 또한, 얼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형이나 헤어스타일과 깊은 관계에 있다.<sup>54)</sup> 네크라인의 모양은 의상의 이미지를 좌우하므로 의상의 선정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된다.

라운드 네크라인은 둥근 형태의 네크라인으로 라인의 깊이에 따라 정숙하거나 얌전하며 귀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sup>55)</sup>

브이 네크라인은 V의 형태로 파져 있으며, 목이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

49) 이정숙.(1980). 「의류학개론」, 학문사, p.182.

50) 안화노.(2008).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패턴 연구」, 건국대학교박사학위 논문, p.11.

51) 유성희.(2014). 「남성용 드레스 셔츠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 청주대학교박사학위 논문, p.6.

52) 임원자.(2003). 「의복 구성학」, 교문사, p.95.

53) 김영자.(1998). 전계서, p.103.

54) 김영룡.(2007). 「여성의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드레스 네크라인 변화가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8.

55) 김영룡(2007). 상계논문, p21.

있고 파인 깊이에 따라 화려하거나 섹시하며 세련된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스퀘어 네크라인은 직선적인 느낌의 네모 형태로 스위트 하트 네크라인과 같이 기본형을 변형한 네크라인이 사용될 수 있다. 넓은 어깨의 체형을 보완하며 마른 체형은 더 외소해 보이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up>56)</sup>

하이 네크라인은 몸판에서 이어져 목선을 따라 높아진 네크라인으로 목이 긴 사람에게 적합하며 전통적이며 우아한 느낌을 주지만 자칫 답답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sup>57)</sup>

#### 2.2.4 아나운서 이미지 변화

##### 2.2.4.1 1980년대 아나운서 스타일

###### 1) 의상

경제 성장과 컬러TV방송으로 컬러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지며 여성들은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무늬가 많은 패턴을 선호하고 리본이나 코사지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들로 화려하게 의상을 장식하였으며 어깨에 패드를 넣어 상체를 과하게 부각시켰고, 악세사리의 착용이 대담하며 화려하게 표현되었다.<sup>58)</sup>

###### 2)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웨이브가 많은 긴 단발 형태로 1980년대 중반이후 헤어스프레이이나 무스와 같은 헤어스타일링 제품이 보급되며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일명 ‘자존심머리’라 하는 앞머리 형태가 유행을 하며 일반 여성들에게도 많이 보여 지기 시작하였다.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초 중반에 비해 웨이브가 강하게 나타나고 앞머리는 이마를 드러내고 결이 많은 형태로 귀를 가리지 않

56) 유송옥.(2006) 패션디자인 p.100

57) 김효정.(2006). 「Wedding Coordination」, 청구문화사 p.19.

58) 박성희.(2004).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TV여성앵커의 패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29.

게 연출하는 것이 특징적 이였다. <sup>59)</sup>

#### 2.2.4.2 1990년대 아나운서 스타일

##### 1) 의상

블라우스에 테일러드 칼라(collar)의 재킷의 착용이 많았고, 블라우스와 재킷의 배색은 경쾌한 밝은 배색이나 동일 배색의 연출이 많았다. 80년대와 마찬가지로 어깨에 패드가 많이 들어간 재킷을 착용하였고 의상에 장식미가 거의 없는 미니멀한 형태로 지적인 세련미를 연출하였다.

##### 2) 헤어스타일

부드러운 C컬 웨이브의 단발형태가 많았고, 머리 길이가 턱 선을 넘지 않았다. 굵은 웨이브의 단발 스타일은 간결하고 단정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뉴스 프로그램의 보수성을 완화하며 여성의 우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 이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단발과 솟의 중간 형태인 보브 스타일로 변화하며 정수리에 볼륨을 넣는 복고적인 형태로 귀족적인 간결함을 나타내었다.<sup>60)</sup>

#### 2.2.4.3 2000년대 아나운서 스타일

##### 1) 의상

앵커의 신뢰감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회색, 베이지색, 네이비색과 같은 색의 재킷을 많이 착용하였으며 치장이 거의 없는 간결한 재킷의 연출이 많았다. 의상의 디자인이나 색상에 있어 시청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매니쉬한 이미지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던 시기로 의상 또한 중성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 2) 헤어스타일

---

59) 진혜경.(2011). 「2000년대 TV뉴스 앵커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교안 개발」, 숙명여자대학교석사학위, p.13.

60) 박성희.(2004). 전계논문, p.29.

커트에 가까운 단발 형태로 머리를 귀 뒤로 넘겨 시원하며 보이쉬한 스타일의 연출이 많았다. 90년대에 비해 전체적인 볼륨이 많이 줄어들고, 앞머리가 살짝 내려오는 형태를 하였지만 이마를 많이 가리거나 덮지 않으며 눈썹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을 유지하였다.

#### 2.2.4.4 2010년대 아나운서 스타일

##### 1) 의상

신뢰감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깔끔하고 반듯한 슈트스타일이 많이 연출되며, 슈트 안에는 셔츠보다는 부드러운 블라우스의 매치가 많았다. 2000년대 이전처럼 어깨에 패드를 넣거나 하여 상체를 과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에 피트 되게 연출하였다.

##### 2) 헤어스타일

전형적인 아나운서의 단발 형태는 아니나 층을 많이 내어 가벼운 스타일로 무겁고 딱딱해 보이는 이미지를 피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하였다. 양쪽 헤어 길이에 차이를 두거나 한쪽만 귀 뒤로 넘겨 언밸런스한 이미지 연출도 많았다.

#### 2.2.4.5 현재 아나운서 스타일

##### 1) 의상

재킷과 블라우스 또는 재킷과 원피스의 형태가 많았고 그 중 깊은 브이넥의 재킷 스타일이 많았는데, 이는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재킷을 부드러운 여성 이미지로 연출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할 수 있다.<sup>61)</sup> 보도 형태나 내용에 계절에 따라 재킷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의상의 제약 없이 다양하게 연출되어진다.

##### 2) 헤어스타일

---

61) 오인영.(2011). 전개논문, p.22.

한가지의 헤어스타일로 이미지로 고정화 되었던 예전에 비해 그날의 의상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이루어지는데, 젊은 층의 아나운서들은 머리를 풀어 연출하는 형태가 많았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에서 머리를 풀어 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지금은 어떠한 스타일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스타일은 자제한다.

[표 2-1] 아나운서 이미지 변천사<sup>62)</sup>

	<p><b>-의상</b> 당당하고 발랄한 이미지의 의상연출. 화려한 악세서리 사용으로 세련된 이미지. <b>-헤어스타일</b> 앞머리는 이마가 드러나게 높게 세우고 굵은 웨이브가 강하게 들어간 긴 단발형태.</p>
	<p>1980년대 MBC 백지연 아나운서</p> <p><b>-의상</b> 화려하지 않은 우아한 여성미가 돋보이며 품위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스타일. <b>-헤어스타일</b> 볼륨을 살린 C컬의 전형적인 아나운서 스타일. 귀를 드러내고 앞머리는 컬을 주어 연출.</p>
	<p>1990년대 MBC 김은주 아나운서</p> <p><b>-의상</b> 테일러드 칼라(collar)의 베이직 스타일에 무채색 선호. 매니쉬한 심플라인. <b>-헤어스타일</b> 단발과 커트의 중간 형태인 보브컷 유행. 귀 뒤로 머리를 넘겨 보이쉬한 이미지 연출.</p>
	<p>2000-년대 MBC 김주하 아나운서</p> <p><b>-의상</b> 깔끔한 슈트 스타일로 상체가 피트 되게 연출. <b>-헤어스타일</b> 언밸런스한 스타일로 도시적 이미지 연출. 헤어의 끝부분을 가볍게 하여 세련된 이미지연출.</p>
	<p>2010년대 MBC 이정민 아나운서</p> <p><b>-의상</b> 칼라(collar)가 없는 슈트의 착용으로 여성스럽게 연출됨. 원피스나 블라우스의 착용으로 부드러운 이미지. <b>-헤어스타일</b> 길게 풀어 연출하는 형태가 많고, 스타일의 고정화가 아닌 다양한 스타일 연출.</p>
<p>현재 MBC 정다희 아나운서</p>	

62) MBC 뉴스테스크 1988년~2017년도 다시보기 화면 캡쳐.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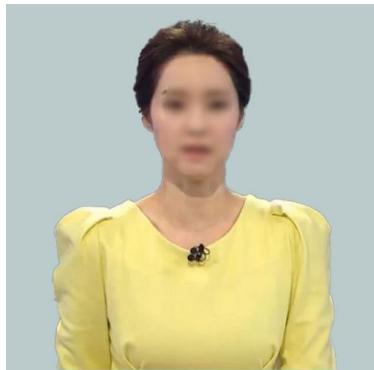
#### 3.1 연구 대상자와 자료수집

연구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인 남녀 70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예비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 후 2017년 4월 10일까지 360부의 설문지를 배포,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 3부를 제외한 357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3.2 자극물 설정

##### 3.2.1 실험 모델 선정

MBC방송 보도국 여성 아나운서 중 2016년 1년 동안 뉴스진행을 하였던 메인 뉴스의 여성 아나운서의 얼굴로 선정하고,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 및 칼라(collar)형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얼굴은 Photoshop CS6 흐림 효과를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그림 3-1] 실제 아나운서의 표본 이미지

### 3.2.2 헤어스타일의 형태 선정

헤어스타일은 실제 아나운서에게 적용하고 있는 헤어스타일로 선정하였다. 헤어 길이에 따라 긴(long), 중간(medium), 짧은(short) 헤어 형태에 컬의 유무를 적용하고, 업스타일(up-style) 2종류를 포함 총 8가지의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실제 아나운서에게 적용했던 스타일과 대입시켜 Photoshop CS6을 이용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선정된 헤어스타일은 다음과 같다.

[표 3-1] 헤어스타일 표본 이미지



### 3.2.3 의상 선정

지상파 방송3사인 MBC, SBS, KBS의 메인 뉴스인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KBS 9시뉴스를 표본으로 하여 2016년 1월·1일~12월 31일까지 366 일 동안의 여자 아나운서 의상을 분석 후 방송 3사 프로그램에서의 빈도수가 많았던 4종류의 네크라인 4종류의 칼라(collar) 형태의 의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칼라(collar)의 형태는 [표 3-2] 과 같다.

[표 3-2] 칼라(collar)형태 및 네크라인(neckline)

			
테일러드 칼라	셔츠 칼라	파리웨이 칼라	캐스 케이드 칼라
			
라운드 네크라인	브이 네크라인	스퀘어 네크라인	하이 네크라인

방송사별 의상 칼라(collar) 형태의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표 3-3] 방송사별 칼라(collar) 빈도수

칼라형태 방송사	테일러드 칼라	셔츠 칼라	파리웨이 칼라	캐스케이드 칼라
MBC	86	67	76	15
SBS	53	34	96	24
KBS	76	49	78	19

방송사별 의상 네크라인(neckline) 의상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표 3-4] 방송사별 네크라인(neckline) 빈도수

방송사	라운드 네크라인	브이 네크라인	스퀘어 네크라인	하이 네크라인	기타
MBC	66	14	14	9	19
SBS	106	14	10	4	15
KBS	94	24	19	7	10

### 3.3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고,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뉴스 시청에 대한 일반적인 5문항,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관심도 문항 3문항, 여성 아나운서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문항 8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4 분석방법

설문지는 엑셀을 이용하여 코팅한 후 SPSS 23.0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 분석 하였고, 뉴스 시청 시간대와 아나운서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선호도에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Fisher검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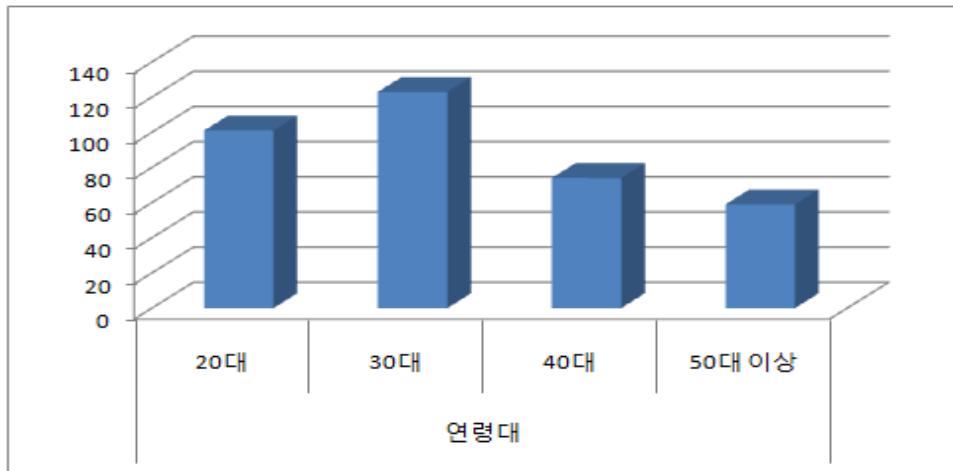
## IV. 연구 결과

###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146명로 40.8%, 여자는 211명로 59.1%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는 101명(28.3%), 30대는 123명(34.5%), 40대는 74명(20.7%), 50대 이상 59명(16.5%)로 조사되었다.

[표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측값 제외)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146	40.8
	여자	211	59.1
연령대	20대	101	28.3
	30대	123	34.5
	40대	74	20.7
	50대 이상	59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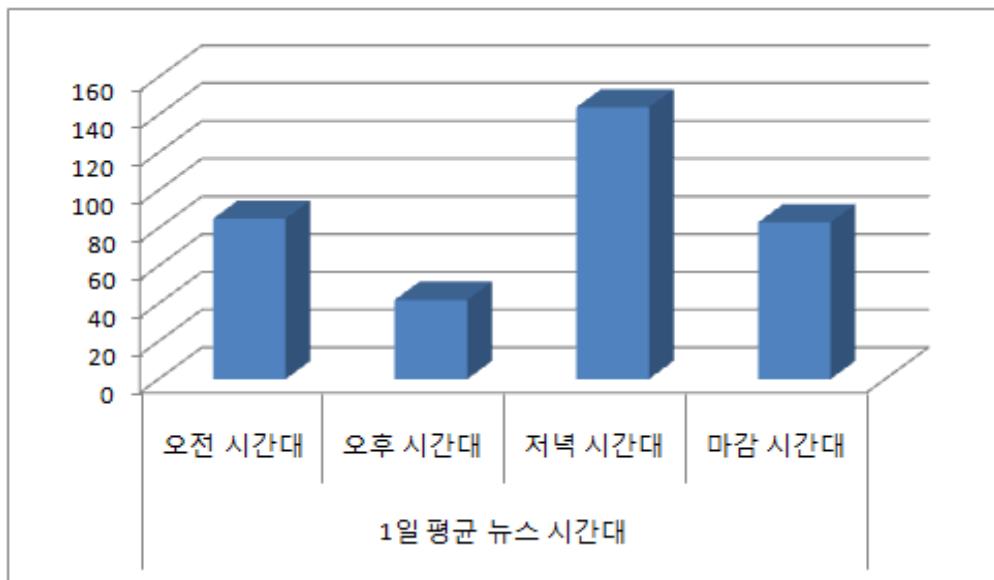
[그림 4-1] 연령대별 빈도 분석

#### 4.1.1 뉴스 시청에 관한 내용 분석

1일 평균 뉴스 시청 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미만은 20.2%(72명), 1~2시간미만은 50.6%(180명), 2~3시간미만은 22.8%(81명), 3~4시간미만은 4.5%(16명), 4시간 이상 2.0%(7명)로 1일 평균 뉴스 시청시간은 1~2시간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일 평균 뉴스 시간대를 살펴보면, 오전뉴스(오전 6~11시)는 24.0%로 오후뉴스(오후12~5시)는 11.9%로 42명, 저녁뉴스(오후 6시~11시)는 40.7%로 144명, 마감뉴스(오후 11이후) 23.4%로 83명으로 저녁 시간대 뉴스 시청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녁뉴스는 종합뉴스로 일반적인 퇴근시간 이후 가장 시청하기에 적합한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 가장 높은 시청시간대로 나타났다. 이용매체로는 TV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스마트폰 순으로 라디오와 신문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TV매체는 다른 매체에 비해 객관성과 현실감이 있고 실물감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부분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4-2] 연구 대상자의 뉴스 시청에 대한 일반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
평균 뉴스 시청 시간	1 시간 미만	72	20.2
	1~2 시간 미만	180	50.6
	2~3 시간 미만	81	22.8
	3~4 시간 미만	16	4.5
	4시간 이상	7	2.0
1일 평균 뉴스 시간대	오전뉴스(오전6~11시)	85	24.0
	오후뉴스(오후12~5시)	42	11.9
	저녁뉴스(오후6시~11시)	144	40.7
	마감뉴스(오후 11이후)	83	23.4
이용 매체	TV	147	41.5
	라디오	31	8.8
	신문	25	7.1
	인터넷	80	22.6
	스마트폰	71	20.1



[그림 4-2] 1일 평균 뉴스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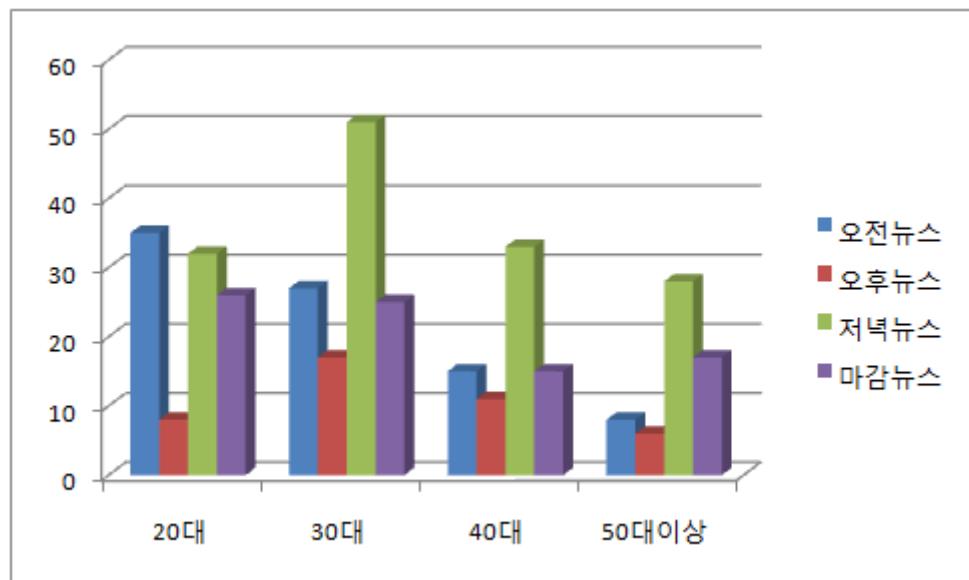
연령대별 1일 평균 뉴스 시간대를 살펴보면, 오전뉴스(오전6시~오전11시) 중 20대가 41.2%(35명), 30대가 31.8%(27명), 40대가 17.6%(15명), 50대 이상이 9.4%(8명)로 나타났다. 오후뉴스(오후12시~오후5시)를 살펴보면, 20대가 19.0%(8명), 30대가 40.5%(17명), 40대가 26.2%(11명), 50대 이상이 14.3%(6명)로 조사되었고, 저녁뉴스(오후6시~오후11시)을 살펴보면, 20대가 22.2%(32명), 30대가 35.4%(51명), 40대가 22.9%(33명), 50대 이상이 19.4%(28명)로 나타났다. 마감뉴스(오후11시 이후)을 살펴보면, 20대가 31.3%(26명), 30대가 30.1%(25명), 40대가 18.1%(15명), 50대 이상이 20.5%(17명)로 조사되었다.

1일 평균 뉴스 시청 시간 중 종합뉴스 시간대인 저녁뉴스 시간대의 시청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40대·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이에 포함되고, 다음으로 높은 뉴스 시청 시간대는 출근에 앞서 교통정보나 그날의 기상 상황을 전달하는 오전시간대(오전06시~오전11시)로 이시간대의 시청자중 20대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4-3] 연령대별 1일 평균 뉴스 시청 시간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총계
오전뉴스(오전6시~오전11시)	명 35	27	15	8	85
	% (41.2%)	(31.8%)	(17.6%)	(9.4%)	(100.0%)
오후뉴스(오후12시~오후5시)	명 8	17	11	6	42
	% 19.0%	40.5%	26.2%	14.3%	100.0%
저녁뉴스(오후6시~오후11시)	명 32	51	33	28	144
	% (22.2%)	(35.4%)	(22.9%)	(9.4%)	(100.0%)
마감뉴스(오후11시 이후)	명 26	25	15	17	83
	% (31.3%)	(30.1%)	(18.1%)	(20.5%)	(100.0%)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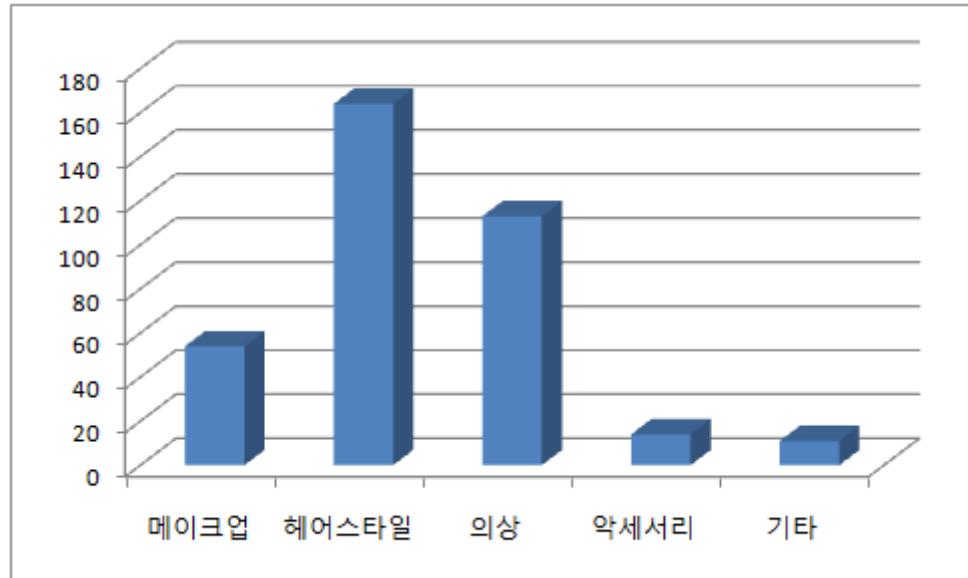
[그림 4-3] 연령대별 1일 평균 뉴스 시청 시간대

#### 4.1.2 아나운서 외모 이미지 중요 요인

아나운서 외모 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메이크업은 54명(15.2%), 헤어스타일은 164명(46.1%), 의상은 113명(31.7%), 악세사리는 14명(3.9%), 기타 11명(3.1%)로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헤어스타일과 의상이 아나운서 외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 진다.

[표 4-4] 아나운서 외모 형성의 중요 요인

변수	항목	빈도	%
아나운서	메이크업	54	15.2
외모에	헤어스타일	164	46.1
미치는 중요	의상	113	31.7
요인	악세서리	14	3.9
	기타	11	3.1



[그림 4-4] 아나운서 외모 형성의 중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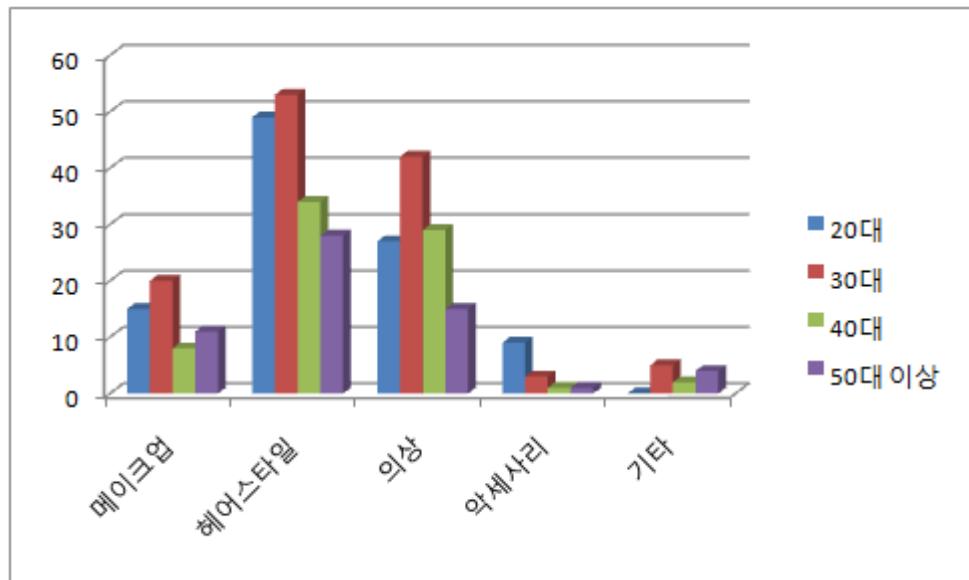
아나운서 외모 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메이크업에서 20대가 27.8%(15명), 30대가 37.0%(20명), 40대가 14.8%(8명), 50대 이상이 20.4%(11명)로 나타났다. 헤어스타일을 살펴보면, 20대가 29.9%(49명), 30대가 32.3%(53명), 40대가 20.7%(34명), 50대 이상이 17.1%(28명)로 나타났다. 의상을 살펴보면, 20대가 23.9%(27명), 30대가 37.2%(42명), 40대가 25.7%(29명), 50대 이상이 13.3%(15명)로 나타났다. 악세사리를 살펴보면, 20대가 64.3%(9명), 30대가 21.4%(3명), 40대가 7.1%(1명), 50대 이상이 7.1%(1명)로 나타났다. 기타를 살펴보면, 20대가 0.0%(0명), 30대가 45.5%(5명), 40대가 18.2%(2명), 50대 이상이 36.4%(4명)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아나운서 외모에서 헤어스타일 연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의상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이미지 연출에 있어 헤어와 의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변화에 대한 부분 또한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5] 연령대별 아나운서 외모 형성의 중요 요인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총계	$X^2$ (p)
메이크업	명 %)	15 (27.8%)	20 (37.0%)	8 (14.8%)	11 (20.4%)	54 (100.0%)
헤어스타일	명 %)	49 (29.9%)	53 (32.3%)	34 (20.7%)	28 (17.1%)	164 (100.0%)
의상	명 %)	27 (23.9%)	42 (37.2%)	29 (25.7%)	15 (13.3%)	113 (100.0%) $20.247^{(.063)}$
악세사리	명 %)	9 (64.3%)	3 (21.4%)	1 (7.1%)	1 (7.1%)	14 (100.0%)
기타	명 %)	0 (0.0%)	5 (45.5%)	2 (18.2%)	4 (36.4%)	11 (100.0%)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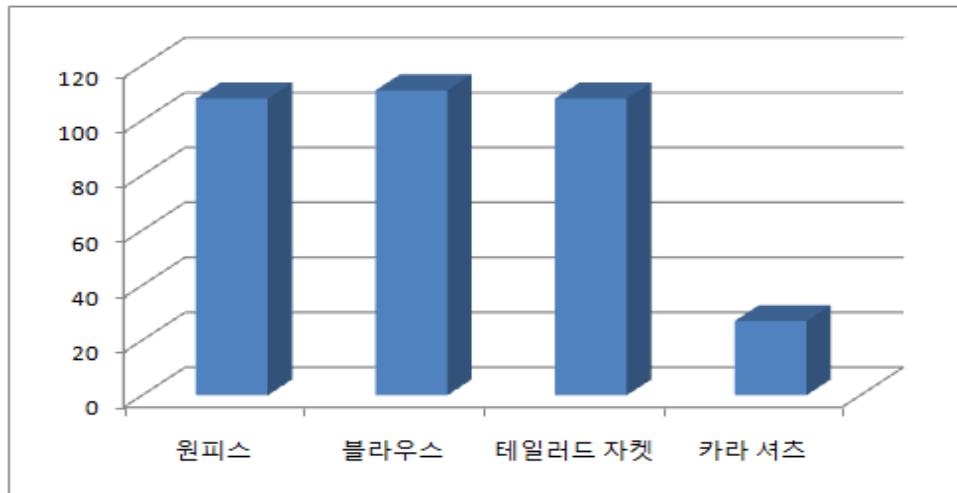
[그림 4-5] 연령대별 아나운서 외모형성의 중요 요인

## 4.2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 선호도

여성 아나운서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원피스는 30.5%(108명), 블라우스는 31.4%(111명), 테일러드 재킷은 30.5%(108명), 카라 셔츠 7.6%(27명)으로 카라 셔츠를 제외 하고는 모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대상자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카라 셔츠 의상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뚜렷이 보여 지고 의상의 선호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표 4-6]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 선호도

항목	빈도수	%
원피스	108	30.5
블라우스	111	31.4
테일러드 재킷	108	30.5
카라 셔츠	27	7.6



[그림 4-6]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 선호도

#### 4.2.1 연령대별 아나운서의 의상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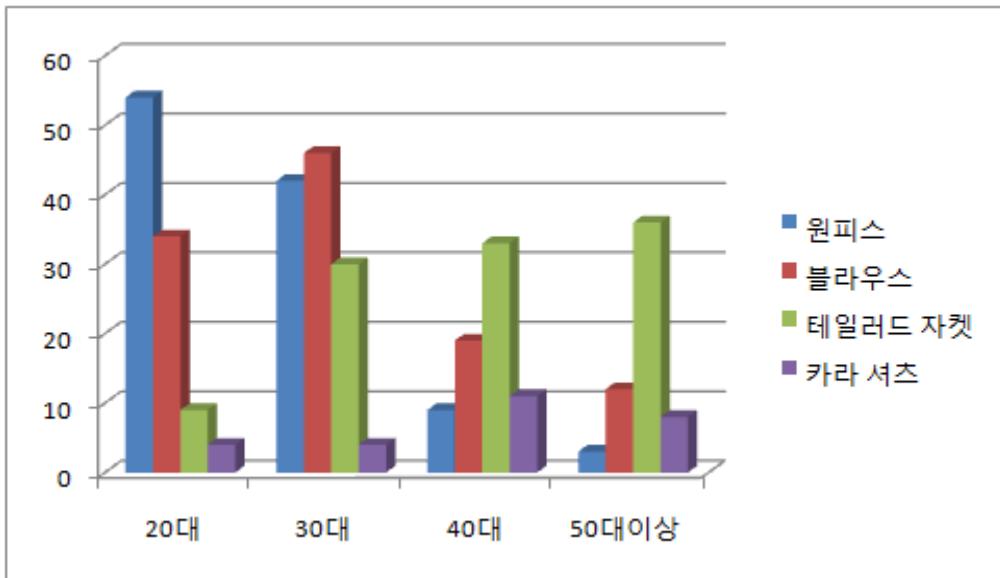
연령대별 여성 아나운서의 선호하는 의상을 살펴보면, 원피스 중 20대가 50.0%(54명), 30대가 38.9%(42명), 40대가 8.3%(9명), 50대 이상이 2.8%(3명)로 나타났다. 블라우스를 살펴보면, 20대가 30.6%(34명), 30대가 41.4%(46명), 40대가 17.1%(19명), 50대 이상이 10.8%(12명)로 나타났다. 테일러드 재킷을 살펴보면, 20대가 8.3%(9명), 30대가 27.8%(30명), 40대가 30.6%(33명), 50대 이상이 33.3%(36명)으로 나타났다. 카라 셔츠를 살펴보면, 20대가 14.8%(4명), 30대가 14.8%(4명), 40대가 40.7%(11명), 50대 이상이 29.6%(8명)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chi^2$ 는 96.243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운서 의상의 선호도에서 셔츠를 제외한 원피스와 블라우스, 테일러드 재킷 모두 선호도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드러운 곡선형 라인의 원피스와 블라우스를 선호하는 20대·30대와 단정하며 격식이 보이는 테일러드 재킷을 선호하는 40대·50대 이상의 선호도가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표 4-7] 연령대별 여성 아나운서 의상의 선호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총계	$\chi^2$ (p)
원피스	명 54	42	9	3	108	
	% (50.0%)	(38.9%)	(8.3%)	(2.8%)	(100.0%)	
블라우스	명 34	46	19	12	111	
	% (30.6%)	(41.4%)	(17.1%)	(10.8%)	(100.0%)	96.243
테일러드 재킷	명 9	30	33	36	108	(.000)
	% (8.3%)	(27.8%)	(30.6%)	(33.3%)	(100.0%)	
카라 셔츠	명 4	4	11	8	27	
	% (14.8%)	(14.8%)	(40.7%)	(29.6%)	(100.0%)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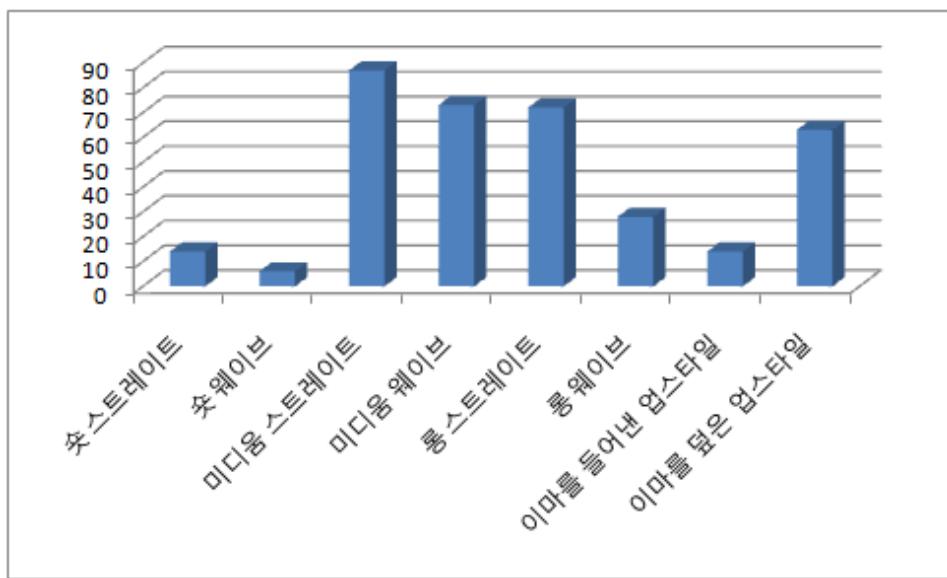
[그림 4-7] 연령대별 아나운서 의상의 선호도

### 4.3 여성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여성 아나운서의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을 살펴보면, 솟 스트레이트는 14명으로 3.9%, 솟 웨이브는 6명으로 1.7%, 미디움 스트레이트는 87명으로 24.4%, 미디움 웨이브는 73명으로 20.4%, 롱 스트레이트는 72명으로 20.2%, 롱 웨이브는 28명으로 7.8%,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은 14명로 3.9%, 이마를 덮은 업스타일은 63명 17.6%로 미디움 스트레이트를 가장 선호 하였지만 미디움 웨이브와 롱 스트레이트의 선호도 또한 높이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헤어스타일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예비 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는 연령대별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 확실히 구분 된다 볼 수 있겠다.

[표 4-8] 여성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항목	빈도수	%
숏 스트레이트	14	3.9
숏 웨이브	6	1.7
미디움 스트레이트	87	24.4
미디움 웨이브	73	20.4
롱 스트레이트	72	20.2
롱 웨이브	28	7.8
이마를 들어낸 업스타일	14	3.9
이마를 덮은 업스타일	63	17.6



[그림 4-8] 여성 아나운서의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 4.3.1 연령대별 여성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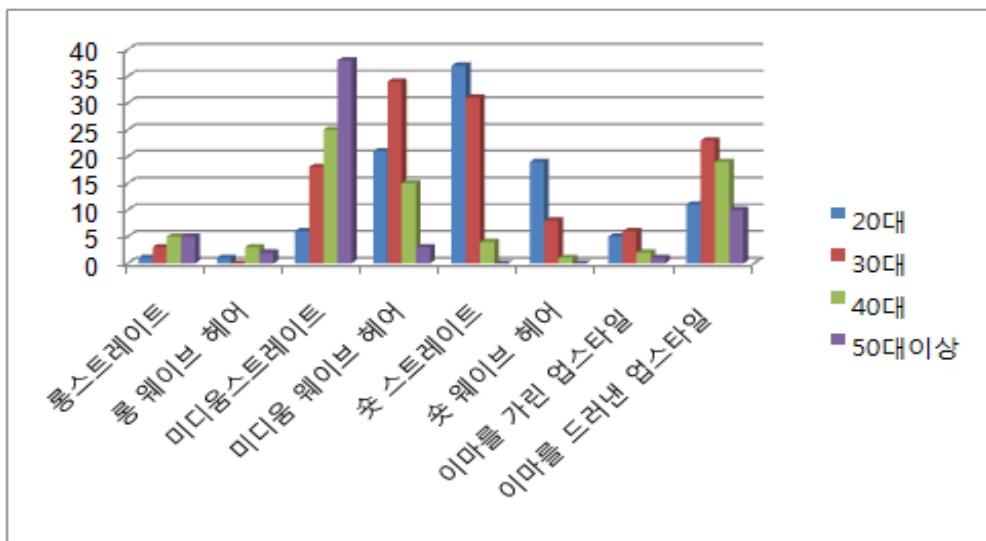
연령대별 여성 아나운서의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을 살펴보면, 솟 스트레이트 중 20대가 7.1%(1명), 30대가 21.4%(3명), 40대가 35.7%(5명), 50대 이상이 35.7%(5명)로 나타났다. 솟 웨이브를 살펴보면, 20대가 16.7%(1명), 30대가 0.0%(0명), 40대가 50.0%(3명), 50대 이상이 33.3%(2명)로 나타났다. 미디움 스트레이트를 살펴보면, 20대가 6.9%(6명), 30대가 20.7%(18명), 40대가 28.7%(25명), 50대 이상이 43.7%(38명)로 나타났다. 미디움 웨이브를 살펴보면, 20대가 28.8%(21명), 30대가 46.6%(34명), 40대가 20.5%(15명), 50대 이상이 4.1%(3명)로 나타났다. 롱 스트레이트를 살펴보면, 20대가 51.4%(37명), 30대가 43.1%(31명), 40대가 5.6%(4명), 50대 이상이 0.0%(0명)로 나타났다. 롱 웨이브를 살펴보면, 20대가 67.9%(19명), 30대가 28.6%(8명), 40대가 3.6%(1명), 50대 이상이 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마를 들어낸 업스타일을 살펴보면, 20대가 35.7%(5명), 30대가 42.9%(6명), 40대가 14.3%(2명), 50대 이상이 7.1%(1명)로 나타났다. 이마를 덮은 업스타일을 살펴보면, 20대가 17.5%(11명), 30대가 36.5%(23명), 40대가 30.2%(19명), 50대 이상이 15.9%(10명)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150.080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운서 헤어스타일의 선호도에서는 롱 스트레이트 스타일과 미디움 웨이브와 같이 현재 젊은 아나운서들에게서 많이 보여 지는 스타일은 20대와 30대에서 많은 선호하였고, 단정하게 아나운서 머리로 정형화 되어진 미디움 스트레이트 스타일은 40대·50대 이상에서 많은 선호도를 보였다.

[표 4-9] 연령대별 여성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총계	X <sup>2</sup>
						(p)
숏 스트레이트	명 1 % (7.1%)	3 (21.4%)	5 (35.7%)	5 (35.7%)	14 (100.0%)	
숏 웨이브	명 1 % (16.7%)	0 (0.0%)	3 (50.0%)	2 (33.3%)	6 (100.0%)	
미디움 스트레이트	명 6 % (6.9%)	18 (20.7%)	25 (28.7%)	38 (43.7%)	87 (100.0%)	
미디움 웨이브	명 21 % (28.8%)	34 (46.6%)	15 (20.5%)	3 (4.1%)	73 (100.0%)	150.080
롱 스트레이트	명 37 % (51.4%)	31 (43.1%)	4 (5.6%)	0 (0.0%)	72 (100.0%)	
롱 웨이브	명 19 % (67.9%)	8 (28.6%)	1 (3.6%)	0 (0.0%)	28 (100.0%)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	명 5 % (35.7%)	6 (42.9%)	2 (14.3%)	1 (7.1%)	14 (100.0%)	
이마를 덮은 업스타일	명 11 % (17.5%)	23 (36.5%)	19 (30.2%)	10 (15.9%)	63 (100.0%)	

\*p<0.05, \*\*p<0.01



[그림 4-9] 연령대별 여성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 4.4 여성 아나운서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테일러드 칼라(collar) 의상에서 헤어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롱 스트레이트 헤어 중 20대가 40.3%(31명), 30대가 42.9%(33명), 40대가 11.7%(9명), 50대 이상이 5.2%(4명)로 나타났고, 롱 웨이브 에서는 20대가 61.5%(16명), 30대가 26.9%(7명), 40대가 3.8%(1명), 50대 이상이 7.7%(2명)로 나타났다. 미디움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23.2%(22명), 30대가 32.6%(31명), 40대가 21.1%(20명), 50대 이상이 23.2%(22명)로 나타났으며, 미디움 웨이브에서는 20대가 41.2%(14명), 30대가 23.5%(8명), 40대가 26.5%(9명), 50대 이상이 8.8%(3명)로 나타났다. 솟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40.0%(4명), 30대가 10.0%(1명), 40대가 30.0%(3명), 50대 이상이 20.0%(2명)로 나타났으며, 솟 웨이브에서는 20대가 25.0%(1명), 30대가 0.0%(0명), 40대가 50.0%(2명), 50대 이상이 25.0%(1명)로 나타났다.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11.6%(11명), 30대가 40.0%(38명), 40대가 24.2%(23명), 50대 이상이 24.2%(23명)로 나타났으며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15.4%(2명), 30대가 30.8%(4명), 40대가 38.5%(5명), 50대 이상이 15.4%(2명)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61.063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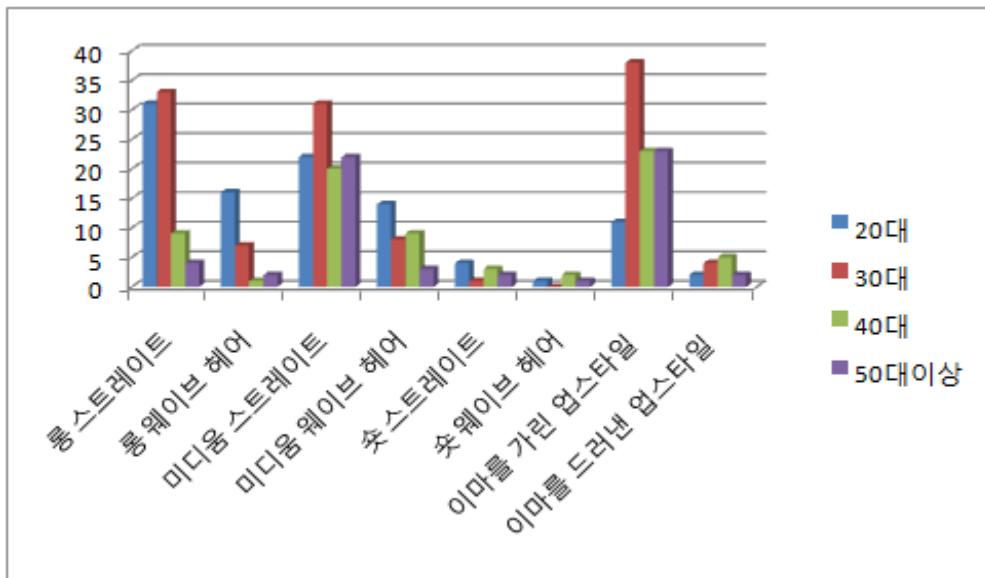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테일러드 칼라의 의상에서는 미디움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과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을 가장 선호한다고 나타났고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롱 스트레이트>미디움 웨이브>롱 웨이브>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솟 웨이브 순으로 조사되었다.

테일러드 칼라의 의상은 양복의 이미지로 단정하고 점잖은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 안정적이며 여성스러운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더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20대에서만 롱 스트레이트를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4-12] 테일러드 칼라(collar)의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총계	$X^2$
						(p)
롱 스트레이트 헤어	명 31 (%) (40.3%)	33 (42.9%)	9 (11.7%)	4 (5.2%)	77 (100.0%)	
롱 웨이브 헤어	명 16 (%) (61.5%)	7 (26.9%)	1 (3.8%)	2 (7.7%)	26 (100.0%)	
미디움 스트레이트 헤어	명 22 (%) (23.2%)	31 (32.6%)	20 (21.1%)	22 (23.2%)	95 (100.0%)	
미디움 웨이브 헤어	명 14 (%) (41.2%)	8 (23.5%)	9 (26.5%)	3 (8.8%)	34 (100.0%)	61.063
숏 스트레이트 헤어	명 4 (%) (40.0%)	1 (10.0%)	3 (30.0%)	2 (20.0%)	10 (100.0%)	
숏 웨이브 헤어	명 1 (25.0%)	0 (0.0%)	2 (50.0%)	1 (25.0%)	4 (100.0%)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	명 11 (11.6%)	38 (40.0%)	23 (24.2%)	23 (24.2%)	95 (100.0%)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	명 2 (15.4%)	4 (30.8%)	5 (38.5%)	2 (15.4%)	13 (100.0%)	

\*p<0.05, \*\*p<0.01



[그림 4-10] 테일러드 칼라(collar)의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셔츠 칼라(collar)의 의상에서 헤어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롱 스트레이트 헤어 중 20대가 58.6%(17명), 30대가 34.5%(10명), 40대가 3.4%(1명), 50대 이상이 3.4%(1명)로 나타났으며, 롱 웨이브에서는 20대가 44.4%(4명), 30대가 33.3%(3명), 40대가 0.0%(0명), 50대 이상이 22.2%(2명)로 나타났다. 미디움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25.3%(25명), 30대가 34.3%(34명), 40대가 23.2%(23명), 50대 이상이 17.2%(17명)로 나타났으며, 미디움 웨이브에서는 20대가 28.0%(14명), 30대가 46.0%(23명), 40대가 20.0%(10명), 50대 이상이 6.0%(3명)으로 나타났다. 솟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20.0%(9명), 30대가 26.7%(12명), 40대가 24.4%(11명), 50대 이상이 28.9%(13명)로 나타났다. 솟 웨이브에서는 20대가 14.3%(1명), 30대가 42.9%(3명), 40대가 14.3%(1명), 50대 이상이 28.6%(2명)로 나타났다.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25.5%(24명), 30대가 33.0%(31명), 40대가 22.3%(21명), 50대 이상이 19.1%(18명)로 나타났으며,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28.6%(6명), 30대가 33.3%(7명), 40대가 23.8%(5명), 50대 이상이 14.3%(3명)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34.142이고, 유의확률은 0.0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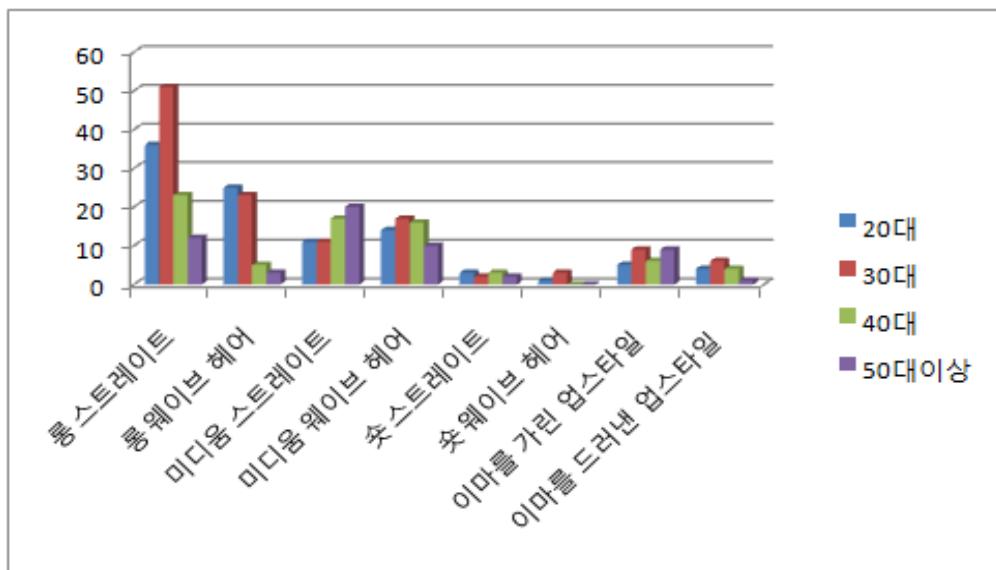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셔츠 칼라의 의상에서는 미디움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을 가장 선호한다고 나타났고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롱 스트레이트>미디움 웨이브>숏 스트레이트>롱 스트레이트>이미를 드러낸 업스타일>롱 웨이브>숏 웨이브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셔츠 칼라의 의상은 와이셔츠와 비슷한 형태로 칼라가 목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답답게 보여 질 수 있는데, 정돈된 깔끔한 미디움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가볍지 않은 단정함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에서 짧은 헤어스타일의 연출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4-13] 셔츠 칼라(collar)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20대	30대	40대	50대	총계	$X^2$
						(p)
롱 스트레이트 헤어	명 17 % (58.6%)	10 (34.5%)	1 (3.4%)	1 (3.4%)	29 (100.0%)	
롱 웨이브 헤어	명 4 % (44.4%)	3 (33.3%)	0 (0.0%)	2 (22.2%)	9 (100.0%)	
미디움 스트레이트 헤어	명 25 % (25.3%)	34 (34.3%)	23 (23.2%)	17 (17.2%)	99 (100.0%)	
미디움 웨이브 헤어	명 14 % (28.0%)	23 (46.0%)	10 (20.0%)	3 (6.0%)	50 (100.0%)	34.142
숏 스트레이트 헤어	명 9 % (20.0%)	12 (26.7%)	11 (24.4%)	13 (28.9%)	45 (100.0%)	
숏 웨이브 헤어	명 1 % (14.3%)	3 (42.9%)	1 (14.3%)	2 (28.6%)	7 (100.0%)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	명 24 % (25.5%)	31 (33.0%)	21 (22.3%)	18 (19.1%)	94 (100.0%)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	명 6 % (28.6%)	7 (33.3%)	5 (23.8%)	3 (14.3%)	21 (100.0%)	

\*p<0.05, \*\*p<0.01



[그림 4-11] 셔츠 칼라(collar)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파리웨이 칼라(collar) 의상에서 헤어스타일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롱 스트레이트 헤어 중 20대가 29.5%(36명), 30대가 41.8%(51명), 40대가 18.9%(23명), 50대 이상이 9.8%(12명)로 나타났으며, 롱 웨이브에서는 20대가 44.6%(25명), 30대가 41.1%(23명), 40대가 8.9%(5명), 50대 이상이 5.4%(3명)로 나타났다. 미디움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18.6%(11명), 30대가 18.6%(11명), 40대가 28.8%(17명), 50대 이상이 33.9%(20명)로 나타났으며, 미디움 웨이브에서는 20대가 24.6%(14명), 30대가 29.8%(17명), 40대가 28.1%(16명), 50대 이상이 17.5%(10명)로 나타났다. 솟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30.0%(3명), 30대가 20.0%(2명), 40대가 30.0%(3명), 50대 이상이 20.0%(2명)로 나타났으며, 솟 웨이브에서는 20대가 25.0%(1명), 30대가 75.0%(3명), 40대가 0.0%(0명), 50대 이상이 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17.2%(5명), 30대가 31.0%(9명), 40대가 20.7%(6명), 50대 이상이 31.0%(9명)로 나타났으며,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26.7%(4명), 30대가 40.0%(6명), 40대가 26.7%(4명), 50대 이상이 6.7%(1명)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51.647이고, 유의확률은 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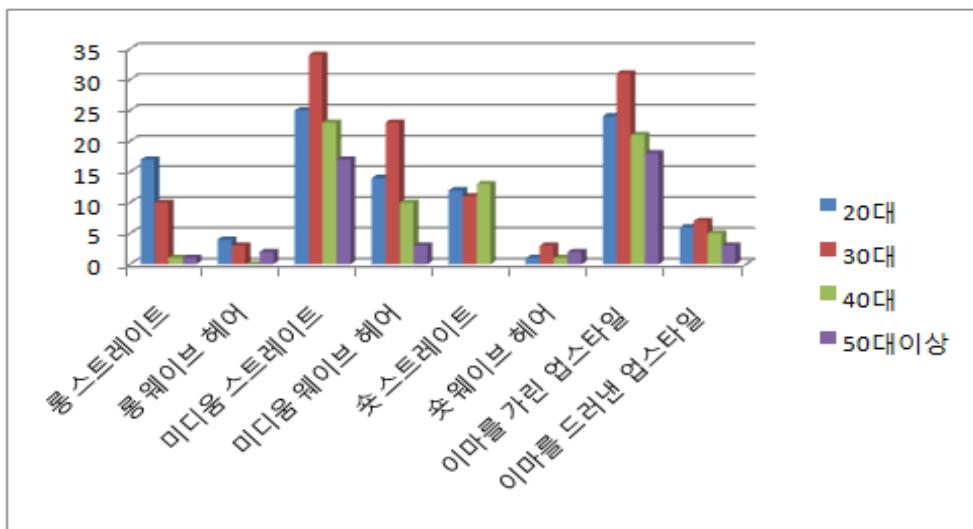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파리웨이 칼라의 의상에서는 롱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을 가장 선호 한다고 나타났고 미디움 스트레이트>미디움 웨이브>롱 웨이브>이마를 가린 업스타일>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솟 스트레이트>롱 스트레이트 순으로 조사되었다.

파리웨이 칼라의 의상은 목에서 칼라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어 다른 칼라와는 다르게 목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장식미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때 헤어의 길이가 짧으면 허전함을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롱 스트레이트와 같은 헤어의 길이를 길게 한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할 수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만 단정한 미디움 스트레이트를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4-14] 파러웨이 칼라(collar)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총계	$X^2$ (p)
롱 스트레이트 헤어	명 36 % (29.5%)	51 (41.8%)	23 (18.9%)	12 (9.8%)	122 (100.0%)	
롱 웨이브 헤어	명 25 % (44.6%)	23 (41.1%)	5 (8.9%)	3 (5.4%)	56 (100.0%)	
미디움 스트레이트 헤어	명 11 % (18.6%)	11 (18.6%)	17 (28.8%)	20 (33.9%)	59 (100.0%)	
미디움 웨이브 헤어	명 14 % (24.6%)	17 (29.8%)	16 (28.1%)	10 (17.5%)	57 (100.0%)	51.647
숏 스트레이트 헤어	명 3 % (30.0%)	2 (20.0%)	3 (30.0%)	2 (20.0%)	10 (100.0%)	
숏 웨이브 헤어	명 1 % (25.0%)	3 (75.0%)	0 (0.0%)	0 (0.0%)	4 (100.0%)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	명 5 % (17.2%)	9 (31.0%)	6 (20.7%)	9 (31.0%)	29 (100.0%)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	명 4 % (26.7%)	6 (40.0%)	4 (26.7%)	1 (6.7%)	15 (100.0%)	

\*p<0.05, \*\*p<0.01



[그림 4-12] 파러웨이 칼라(collar)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캐스케이드 칼라(collar) 의상에서 헤어스타일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롱 스트레이트 헤어 중 20대가 55.9%(19명), 30대가 38.2%(13명), 40대가 2.9%(1명), 50대 이상이 2.9%(1명)으로 나타났으며, 롱 웨이브에서는 20대가 35.3%(6명), 30대가 29.4%(5명), 40대가 17.6%(3명), 50대 이상이 17.6%(3명)로 나타났다. 미디움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16.5%(14명), 30대가 38.8%(29명), 40대가 23.5%(20명), 50대 이상이 21.2%(18명)로 나타났으며, 미디움 웨이브에서는 20대가 36.1%(22명), 30대가 47.5%(33명), 40대가 8.2%(5명), 50대 이상이 8.2%(5명)로 나타났다. 솟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31.3%(5명), 30대가 18.8%(3명), 40대가 18.8%(3명), 50대 이상이 31.3%(5명)로 나타났으며, 솟 웨이브에서는 20대가 20.0%(1명), 30대가 20.0%(1명), 40대가 40.0%(2명), 50대 이상이 20.0%(1명)로 나타났다.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20.7%(17명), 30대가 34.1%(28명), 40대가 29.3%(24명), 50대 이상이 15.9%(13명)로 나타났으며,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28.8%(15명), 30대가 21.2%(11명), 40대가 30.8%(16명), 50대 이상이 19.2%(10명)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51.104이고, 유의확률은 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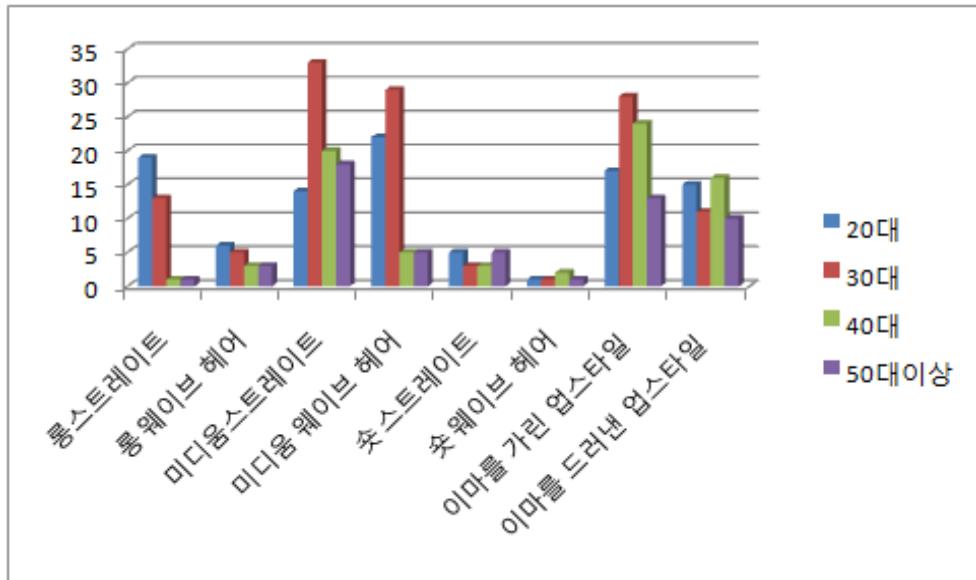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캐스케이드 칼라의 의상에서는 미디움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을 가장 선호한다고 나타났고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미디움 웨이브>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롱 스트레이트>롱 웨이브>숏 스트레이트>숏 웨이브 순으로 조사되었다.

캐스케이드 칼라의 의상은 칼라 부분에 많은 프릴이 형성되어 있어 목 부분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화려하게 보여 질 수 있다. 미디움 스트레이트나 업스타일과 같이 헤어의 길이가 짧게 보여 지는 스타일이 칼라의 화려함을 절충시켜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연출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에서 짧은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4-15] 캐스케이드 칼라(collar)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20대	30대	40대	50대	총계	$X^2$ (p)
롱 스트레이트 헤어	명 19 % (55.9%)	13 (38.2%)	1 (2.9%)	1 (2.9%)	34 (100.0%)	
롱 웨이브 헤어	명 6 % (35.3%)	5 (29.4%)	3 (17.6%)	3 (17.6%)	17 (100.0%)	
미디움 스트레이트 헤어	명 14 % (16.5%)	29 (38.8%)	20 (23.5%)	18 (21.2%)	85 (100.0%)	
미디움 웨이브 헤어	명 22 % (36.1%)	33 (47.5%)	5 (8.2%)	5 (8.2%)	61 (100.0%)	$51.104$ (.000)
숏 스트레이트 헤어	명 5 % (31.3%)	3 (18.8%)	3 (18.8%)	5 (31.3%)	16 (100.0%)	
숏 웨이브 헤어	명 1 % (20.0%)	1 (20.0%)	2 (40.0%)	1 (20.0%)	5 (100.0%)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	명 17 % (20.7%)	28 (34.1%)	24 (29.3%)	13 (15.9%)	82 (100.0%)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	명 15 % (28.8%)	11 (21.2%)	16 (30.8%)	10 (19.2%)	52 (100.0%)	

\*p<0.05, \*\*p<0.01



[그림 4-13] 캐스케이드 칼라(collar)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라운드 네크라인(neckline) 의상에서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살펴보면, 롱 스트레이트 헤어 중 20대가 27.2%(25명), 30대가 41.3%(38명), 40대가 18.5%(17명), 50대 이상이 13.0%(12명)으로 나타났으며, 롱 웨이브에서는 20대가 52.8%(28명), 30대가 26.4%(14명), 40대가 13.2%(7명), 50대 이상이 7.5%(4명)로 나타났다. 미디움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18.5%(15명), 30대가 28.4%(23명), 40대가 28.4%(23명), 50대 이상이 24.7%(20명)로 나타났으며, 미디움 웨이브에서는 20대가 32.3%(21명), 30대가 40.0%(26명), 40대가 13.8%(9명), 50대 이상이 13.8%(9명)로 나타났다. 솟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7.7%(1명), 30대가 7.7%(1명), 40대가 38.5%(5명), 50대 이상이 46.2%(6명)로 나타났으며, 솟 웨이브에서는 20대가 25.0%(1명), 30대가 25.0%(1명), 40대가 25.0%(1명), 50대 이상이 25.0%(1명)로 나타났다.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20.0%(6명), 30대가 53.3%(16명), 40대가 13.3%(4명), 50대 이상이 13.3%(4명)로 나타났으며,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22.2%(2명), 30대가 33.3%(3명), 40대가 11.1%(1명), 50대 이상이 33.3%(3명)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50.505이고, 유의확률은 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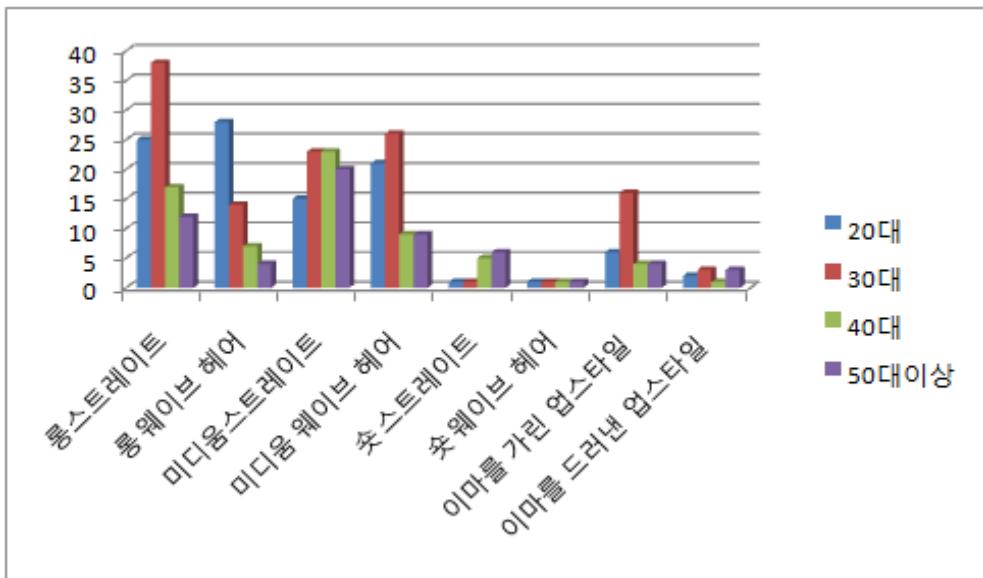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라운드 네크라인의 의상에서는 롱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을 가장 선호한다고 나타났고 미디움 스트레이트>미디움 웨이브>롱 웨이브>이미를 가린 업스타일>솟 스트레이트>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솟 웨이브 순으로 조사되었다.

라운드 네크라인의 의상은 곡선의 부드러움과 귀여우며 얌전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너무 단정하고 격식 있는 헤어스타일은 의상과 매치에서 조화롭지 못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롱 길이의 헤어로 여성스러우며 친근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20대와 30대는 롱 헤어스타일을, 40대와 50대 이상은 미디움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이며 연령대별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6] 라운드 네크라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총계	$X^2$
						(p)
롱 스트레이트 헤어	명 25 % (27.2%)	38 (41.3%)	17 (18.5%)	12 (13.0%)	92 (100.0%)	
롱 웨이브 헤어	명 28 % (52.8%)	14 (26.4%)	7 (13.2%)	4 (7.5%)	53 (100.0%)	
미디움 스트레이트 헤어	명 15 % (18.5%)	23 (28.4%)	23 (28.4%)	20 (24.7%)	81 (100.0%)	
미디움 웨이브 헤어	명 21 % (32.3%)	26 (40.0%)	9 (13.8%)	9 (13.8%)	65 (100.0%)	50.505
숏 스트레이트 헤어	명 1 % (7.7%)	1 (7.7%)	5 (38.5%)	6 (46.2%)	13 (100.0%)	
숏 웨이브 헤어	명 1 % (25.0%)	1 (25.0%)	1 (25.0%)	1 (25.0%)	4 (100.0%)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	명 6 % (20.0%)	16 (53.3%)	4 (13.3%)	4 (13.3%)	30 (100.0%)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	명 2 % 22.2%	3 33.3%	1 11.1%	3 33.3%	9 100.0%	

\*p<0.05, \*\*p<0.01



[그림 4-14] 라운드 네크라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브이 네크라인(neckline)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살펴보면, 롱 스트레이트 헤어 중 20대가 30.8%(33명), 30대가 32.7%(35명), 40대가 18.7%(20명), 50대 이상이 17.8%(19명)로 나타났으며, 롱 웨이브에서는 20대가 35.5%(39명), 30대가 45.5%(50명), 40대가 14.5%(16명), 50대 이상이 4.5%(5명)로 나타났다. 미디움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16.7%(5명), 30대가 20.0%(6명), 40대가 26.7%(8명), 50대 이상이 36.7%(11명)로 나타났으며, 미디움 웨이브에서는 20대가 21.3%(10명), 30대가 42.6%(20명), 40대가 21.3%(10명), 50대 이상이 14.9%(7명)로 나타났다. 솟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0.0%(0명), 30대가 33.3%(2명), 40대가 16.7%(1명), 50대 이상이 50.0%(3명)로 나타났으며, 솟 웨이브에서는 20대가 33.3%(1명), 30대가 33.3%(1명), 40대가 33.3%(1명), 50대 이상이 0.0%(0명)로 나타났다.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22.2%(8명), 30대가 19.4%(7명), 40대가 27.8%(10명), 50대 이상이 30.6%(11명)로 나타났으며,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33.3%(4명), 30대가 16.7%(2명), 40대가 25.0%(3명), 50대 이상이 25.0%(3명)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46.688이고, 유의확률은 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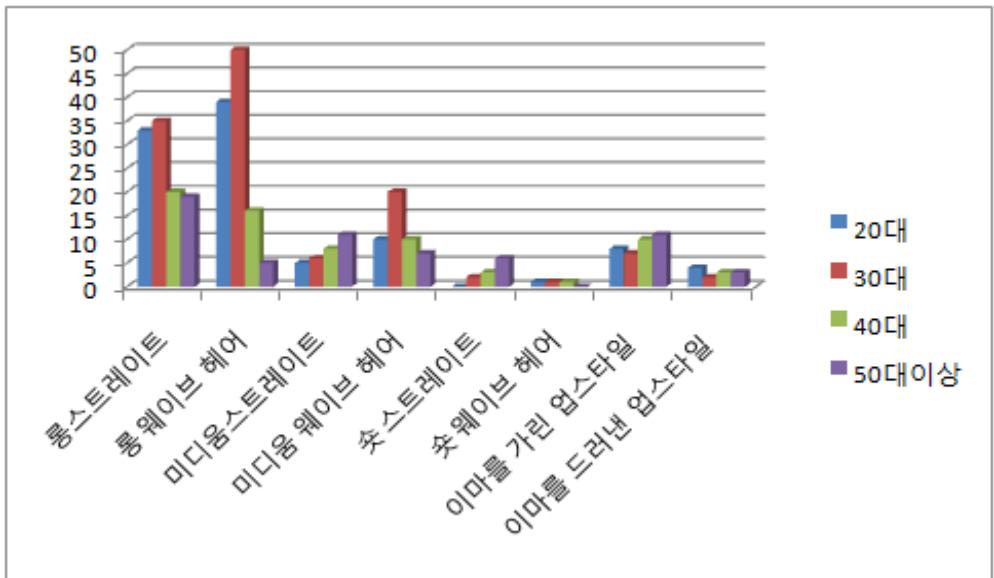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브이 네크라인 의상에서는 롱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가장 선호한다고 나타났고 롱 스트레이트>미디움 웨이브>이마를 가린 업스타일>미디움 스트레이트>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솟 스트레이트>솟 웨이브 순으로 조사되었다.

브이 네크라인의 의상은 앞트임 부분이 깊어 몸이 커 보이거나 과한 노출로 보여 질 수 있으므로 헤어스타일을 앞쪽에서 연출시켜 목 주변의 허전함을 보완하고 가슴으로 부터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에서 롱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4-17] 브이 네크라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총계	$X^2$ (p)
롱 스트레이트 헤어	명 33 % (30.8%)	35 (32.7%)	20 (18.7%)	19 (17.8%)	107 (100.0%)	
롱 웨이브 헤어	명 39 % (35.5%)	50 (45.5%)	16 (14.5%)	5 (4.5%)	110 (100.0%)	
미디움 스트레이트 헤어	명 5 % (16.7%)	6 (20.0%)	8 (26.7%)	11 (36.7%)	30 (100.0%)	
미디움 웨이브 헤어	명 10 % (21.3%)	20 (42.6%)	10 (21.3%)	7 (14.9%)	47 (100.0%)	46.688
숏 스트레이트 헤어	명 0 % (0.0%)	2 (33.3%)	1 (16.7%)	3 (50.0%)	6 (100.0%)	
숏 웨이브 헤어	명 1 % (33.3%)	1 (33.3%)	1 (33.3%)	0 (0.0%)	3 (100.0%)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	명 8 % (22.2%)	7 (19.4%)	10 (27.8%)	11 (30.6%)	36 (100.0%)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	명 4 % (33.3%)	2 (16.7%)	3 (25.0%)	3 (25.0%)	12 (100.0%)	

\*p<0.05, \*\*p<0.01



[그림 4-15] 브이 네크라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스퀘어 네크라인(neckline)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살펴보면, 롱 스트레이트 헤어 중 20대가 34.9%(22명), 30대가 30.2%(19명), 40대가 19.0%(12명), 50대 이상이 15.9%(10명)로 나타났으며, 롱 웨이브 에서는 20 대가 44.4%(28명), 30대가 36.5%(23명), 40대가 11.1%(7명), 50대 이상이 7.9%(5명)로 나타났다. 미디움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22.8%(18명), 30대 가 31.6%(25명), 40대가 30.4%(24명), 50대 이상이 15.2%(12명)로 나타났으 며, 미디움 웨이브에서는 20대가 26.3%(21명), 30대가 35.0%(28명), 40대가 22.5%(18명), 50대 이상이 16.3%(13명)로 나타났다. 솟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5.6%(1명), 30대가 27.8%(5명), 40대가 27.8%(5명), 50대 이상이 38.9%(7명)로 나타났다. 솟 웨이브에서는 20대가 0.0%(0명), 30대가 40.0%(2명), 40대가 40.0%(2명), 50대 이상이 20.0%(1명)로 나타났다. 이마 를 가린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23.5%(8명), 30대가 44.1%(15명), 40대가 8.8%(3명), 50대 이상이 23.5%(8명)로 나타났으며,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 에서는 20대가 20.0%(2명), 30대가 30.0%(3명), 40대가 30.0%(3명), 50대 이상이 20.0%(2명)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46.688이고, 유의확률은 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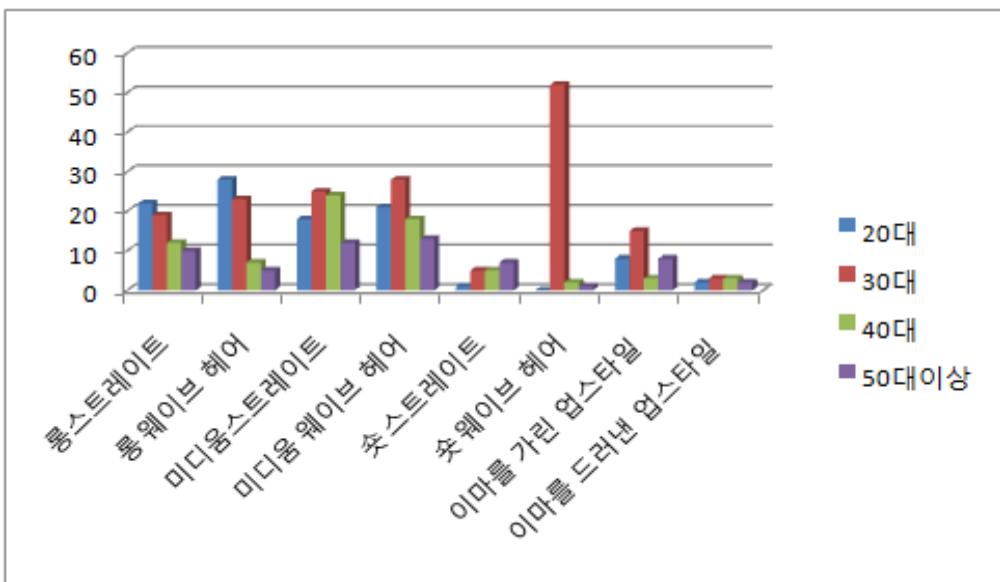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스퀘어 네크라인의 의상에서는 미디움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가장 선호한다고 나타났고 미디움 스트레이트>롱 스트레이트. 롱 웨이브>이마 를 가린 업스타일>솟 스트레이트>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솟 웨이브 순으로 조사되었다.

스퀘어 네크라인의 의상은 직선의 네모 느낌으로 딱딱하게 보여 질 수 있 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디움 웨이브와 같은 곡선의 헤어 형태가 날카롭고 딱 딱해 보이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다. 40대를 제외하고 웨이브 스타일을 선 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4-18] 스웨어 네크라인 의상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20대	30대	40대	50대	총계	$X^2$
						(p)
롱 스트레이트 헤어	명 22 % (34.9%)	19 (30.2%)	12 (19.0%)	10 (15.9%)	63 (100.0%)	
롱 웨이브 헤어	명 28 % (44.4%)	23 (36.5%)	7 (11.1%)	5 (7.9%)	63 (100.0%)	
미디움 스트레이트 헤어	명 18 % (22.8%)	25 (31.6%)	24 (30.4%)	12 (15.2%)	79 (100.0%)	
미디움 웨이브 헤어	명 21 % (26.3%)	28 (35.0%)	18 (22.5%)	13 (16.3%)	80 (100.0%)	46.688
숏 스트레이트 헤어	명 1 % (5.6%)	5 (27.8%)	5 (27.8%)	7 (38.9%)	18 (100.0%)	(.000)
숏 웨이브 헤어	명 0 % (0.0%)	2 (40.0%)	2 (40.0%)	1 (20.0%)	5 (100.0%)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	명 8 % (23.5%)	15 (44.1%)	3 (8.8%)	8 (23.5%)	34 (100.0%)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	명 2 % (20.0%)	3 (30.0%)	3 (30.0%)	2 (20.0%)	10 (100.0%)	

\*p<0.05, \*\*p<0.01



[그림 4-16] 스웨어 네크라인 의상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하이 네크라인(neckline)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살펴보면, 롱 스트레이트 헤어 중 20대가 41.7%(5명), 30대가 33.3%(4명), 40대가 8.3%(1명), 50대 이상이 16.7%(2명)로 나타났으며, 롱 웨이브에서는 20대가 64.3%(9명), 30대가 14.3%(2명), 40대가 0.0%(0명), 50대 이상이 21.4%(3명)로 나타났다. 미디움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18.2%(8명), 30대가 45.5%(20명), 40대가 27.3%(12명), 50대 이상이 9.1%(4명)로 나타났으며, 미디움 웨이브에서는 20대가 40.0%(10명), 30대가 56.0%(14명), 40대가 4.0%(1명), 50대 이상이 0.0%(0명)로 나타났다. 솟 스트레이트에서는 20대가 26.4%(19명), 30대가 26.4%(19명), 40대가 22.2%(16명), 50대 이상이 25.0%(18명)로 나타났으며, 솟 웨이브에서는 20대가 29.4%(5명), 30대가 29.4%(5명), 40대가 23.5%(4명), 50대 이상이 17.6%(3명)로 나타났다.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31.6%(36명), 30대가 36.8%(42명), 40대가 18.4%(21명), 50대 이상이 13.2%(15명)로 나타났으며,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에서는 20대가 15.8%(9명), 30대가 26.3%(15명), 40대가 33.3%(19명), 50대 이상이 24.6%(14명)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chi^2$ 는 47.697이고, 유의확률은 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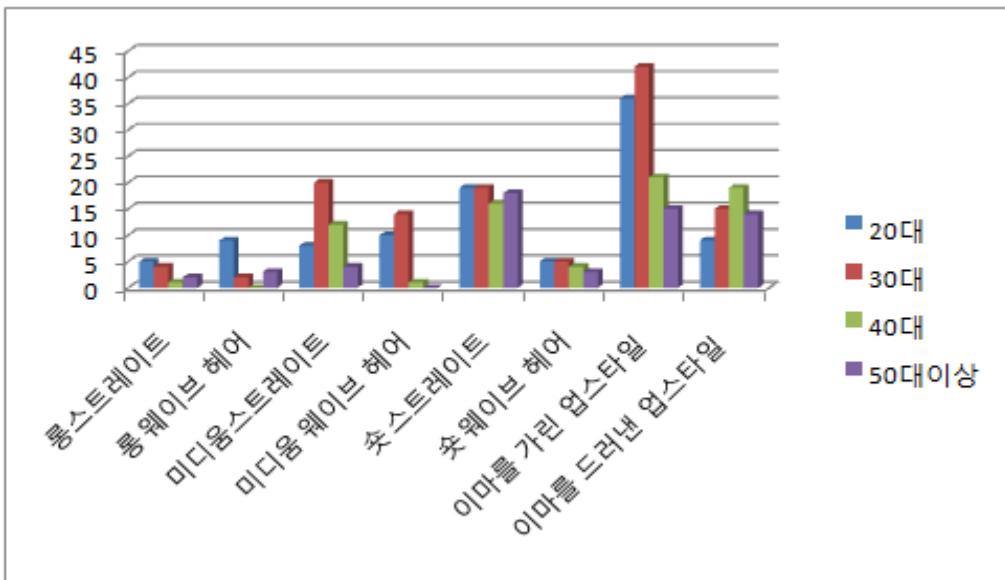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하이 네크라인의 의상에서는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을 가장 선호한다고 나타났고 솟 스트레이트>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미디움 스트레이트>미디움 웨이브>숏 웨이브>롱 웨이브>롱 스트레이트 순으로 조사되었다.

하이 네크라인의 의상은 얼굴과 가깝게 네크라인이 형성되어 헤어의 길이가 조금만 길어도 답답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솟 스트레이트나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과 같이 턱 선을 넘지 않는 헤어 연출이 적합하며, 웨이브의 연출은 자칫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 연령층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총계	$X^2$ (p)
롱 스트레이트 헤어	명 5 % (41.7%)	4 (33.3%)	1 (8.3%)	2 (16.7%)	12 100.0%	
롱 웨이브 헤어	명 9 % (64.3%)	2 (14.3%)	0 (0.0%)	3 (21.4%)	14 (100.0%)	
미디움 스트레이트 헤어	명 8 % (18.2%)	20 (45.5%)	12 (27.3%)	4 (9.1%)	44 (100.0%)	
미디움 웨이브 헤어	명 10 % (40.0%)	14 (56.0%)	1 (4.0%)	0 (0.0%)	25 (100.0%)	47.69
숏 스트레이트 헤어	명 19 % (26.4%)	19 (26.4%)	16 (22.2%)	18 (25.0%)	72 (100.0%)	
숏 웨이브 헤어	명 5 % (29.4%)	5 (29.4%)	4 (23.5%)	3 (17.6%)	17 (100.0%)	
이마를 가린 업스타일	명 36 % (31.6%)	42 (36.8%)	21 (18.4%)	15 (13.2%)	114 (100.0%)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	명 9 % (15.8%)	15 (26.3%)	19 (33.3%)	14 (24.6%)	57 (100.0%)	

[표 4-19] 하이 네크라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p<0.05, \*\*p<0.01



[그림 4-17]하이 네크라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 V. 결 론

뉴스 프로그램에서 여성 아나운서의 비중이 커진 만큼 아나운서의 외적인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현재 뉴스 프로그램에서의 아나운서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나운서 스타일이 다양하게 연출되어지고 있다. TV프로그램마다 아나운서가 가지는 이미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뉴스 진행 여성 아나운서로 한정하였으며, 아나운서 의상의 칼라(collar) 및 네크라인(neckline)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연관성을 알아보고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인 남녀 360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1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 3부를 제외한 357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 분석 하였고, 뉴스 시청 시간대와 아나운서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Fisher검증을 사용하였다.

첫째, 1일 평균 뉴스 시청 시간 중 종합뉴스 시간대인 저녁뉴스 시간대의 시청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40대·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이에 포함되고, 다음으로 높은 뉴스 시청 시간대는 출근에 앞서 교통정보나 그날의 기상 상황을 전달하는 오전시간대(오전06시~오전11시)로 이시간대의 시청자중 20대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용매체로는 TV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스마트폰 순으로 라디오와 신문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TV매체는 다른 매체에 비해 객관성과 현실감이 있고 실물감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부분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성 아나운서의 외모에 대한 중요 요인으로 헤어스타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의상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이나 악세사리와 같은 디테일 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헤어와 의상인 것이다.

셋째, 아나운서 의상의 선호도에서 셔츠를 제외한 원피스와 블라우스, 테일러드 재킷 모두 선호도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드러운 곡선형 라인의 원피스와 블라우스를 선호하는 20대·30대와 단정하며 격식이 보이는 테일러드 재킷을 선호하는 40대·50대 이상의 선호도가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넷째, 아나운서 헤어스타일의 선호도에서는 롱 스트레이트 스타일과 미디움 웨이브와 같이 현재 짧은 아나운서들에게서 많이 보여지는 스타일은 20대와 30대에서 많은 선호를 얻었고, 단정하게 아나운서 머리로 정형화되어진 미디움 스트레이트 스타일은 40대·50대 이상에서 많은 선호도를 보였다.

다섯째,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테일러드 칼라의 의상은 양복의 이미지로 단정하고 점잖은 느낌을 줄 수 있고 여기에 안정적이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린 업스타일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더해준다 할 수 있다. 다른 연령층과 달리 20대에서만 롱 스트레이트를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셔츠 칼라의 의상은 와이셔츠와 비슷한 형태로 칼라가 목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답답게 보여 질 수 있으므로 정돈된 깔끔한 미디움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가볍지 않은 단정함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에서 짧은 헤어스타일의 연출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파리웨이 칼라의 의상은 목에서 칼라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어 다른 칼라와는 다르게 목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장식미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때 헤어의 길이가 짧으면 허전함을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롱 스트레이트와 같은 헤어의 길이를 길게 한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대 이상에서만 단정한 미디움 스트레이트를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캐스케이드 칼라의 의상은 칼라 부분에 많은 프릴이 형성되어 있어 목 부분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화려하게 보여질 수 있다. 미디움 스트레이트나 업스타일과 같이 헤어의 길이가 짧게 보여지는 스타일이 칼라의 화려함을 절충시켜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연출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에서는 짧은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라운드 네크라인의 의상은 곡선의 부드러움과 귀여우며 암전한 이미지를 줄 있어 너무 단정하고 격식 있는 헤어스타일은 의상과 매치에서 조화롭지 못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롱 길이의 헤어로 여성스러우며 친근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20대와 30대는 롱 헤어스타일을, 40대와 50대 이상은 미디움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이며 연령대별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브이 네크라인의 의상은 앞 트임 부분이 깊어 몸이 커 보이거나 과한 노출로 보여 질 수 있으므로 헤어스타일을 앞쪽에서 연출시켜 목 주변의 허전함을 보완하고 가슴으로부터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 연령대에서 롱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스퀘어 네크라인의 의상은 직선의 네모 느낌으로 딱딱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미디움 웨이브와 같은 곡선의 헤어 형태가 날카롭고 딱딱해 보이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0대를 제외하고 웨이브 스타일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이 네크라인의 의상은 얼굴과 가깝게 네크라인이 형성되어 헤어의 길이가 조금만 길어도 답답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솟 스트레이트나 이마를 드러낸 업스타일과 같이 턱 선을 넘지 않는 헤어연출이 적합하며, 웨이브의 연출

은 자칫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연령층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예전의 아나운서 헤어스타일은 어폐한 의상에서든 깔끔함과 단정함의 상징인 단발이라는 스타일로 고정화되고 의상의 폭 또한 제한적이며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로 일관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경향이었는데, 이러한 통일성이 뉴스의 신뢰감과 직결된다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부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의상과 헤어스타일의 연출에 다양성과 개성이 반영되어 시청자에게 다양한 이미지로 신뢰도를 어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층에 따라 아나운서 이미지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상과의 조화가 선호도와 많은 부분 매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상호작용하여 조화를 이룰 때 외적인 스타일에서도 신뢰감 있는 아나운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나운서의 이미지 자극물을 설정하는데 있어 지상파 메인 뉴스 프로그램으로 국한시켰다는 점과 아나운서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의 연출이 다양해져 실험에 적용할 표본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고, 시청자의 선호도 조사에 있어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뚜렷한 차이가 없이 나타나 분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소 복잡한 연구 결과의 분석 또한 한계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자는 뉴스 진행 여성 아나운서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지만 현재 아나운서의 활동 범위가 다양해진만큼 예능이나 시사, 교양, 스포츠 프로그램 부분에서의 의상 디테일과 헤어스타일 연관성 분석과 의상 컬러(color)와의 연관성 연구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아나운서의 이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스타일을 체계화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장순희, 서미아.(2002) 「의복의 입체구성:이론 및 실기」, 교문사, pp.94-98.
- 강승희.(2005).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에 의한 남성 캐주얼웨어 이미지 지각 연구」, 성신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16.
- 강진희.(2015). 「아나운서의 뉴스·예능·교양 메이크업 분석」,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20-21.
- 국승채.(2013). 「TV홈쇼핑 상품 유형 별 쇼 호스트의 스타일링과 색채이미지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47-49.
- 김동미.(2015). 「두발 길이에 따른 앞머리와 가르마의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서울벤처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14-18.
- 김명기.(2010). 「웨딩헤드드레스, 헤어스타일, 네크라인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10-28.
- 김수정.(2001). 「채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앵커의 속성」,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45.
- 김영란.(2001). 「텔레비전 뉴스진행자의 의상디자인에 관한 분석」,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89-91.
- 김영란.(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복 구성의 부분 변형」, 건국대학교박사학위 논문, p55.
- 김영룡.(2007). 「여성의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드레스 네크라인 변화가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8.
- 김영자.(1998).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p.103.
- 김윤미.(2010). 「영화 포스터 이미지에 따른 캐릭터 이미지 지각:배우 연상 이미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경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18-20.
- 김정숙.(2009). 「뉴스와 예능 프로그램 여자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 특성」, 중앙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7.
- 김정은.(2003). 「국내 TV 뉴스에서 활용되는 정보원 특성에 관한 연구:KBS,MBC,SBS 저녁종합뉴스 내용분석」, 연세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16.

- 김종숙.(2011). 「웨딩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 국제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6.
- 김지향.(2012). 「HDTV에 표현된 뉴스앵커 분장현황 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26.
- 김효정.(2006). 「Wedding Coordination」, 청구문화사, p.19.
- 김효주.(2013). 「네크라인 및 칼라의 변화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형태적 관련성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6-17.
- 나광주.(1989).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광주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29.
- 나선희.(2000). 「앵커의 이미지와 화법이 뉴스 평가에 미치는 여향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4-14.
- 박길순.(2009). 「패션 이미지스타일링」, 궁미디어, p.152.
- 박미애.(2009). 「개인 이미지에 따른 연예인 헤어스타일의 선호도」,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11.
- 박성희.(2004).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TV 여성앵커의 패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 p.29.
- 박숙현.(2002). 「패션 이미지 메이킹」, 예학사, p.71.
- 박홍식.(2008). 「뉴스 앵커의 평판이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상파 TV 3사의 메인 뉴스프로그램은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7-19
- 방해주.(2012). 「효과적인 취업 이미지메이킹 적용연구 - 대구광역시 20대 남학생을 중심으로 -」,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15.
- 서장일.(2005). 「의상 이미지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조사 연구: 대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남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34-40.
- 손지연.(2016).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23-26.
- 신영일.(2009). 「뉴스앵커와 연예오락프로그램진행자의 공신력에 대한 인식 차이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31.
- 안혜연.(2010). 「TV 뉴스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 스타일링 분석」, 한양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23-26.

- 교석사학위 논문, pp.7-10.
- 안화노.(2008).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패턴 연구」, 건국대학교박사학위 논문, p.11.
- 오인영.(201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유형에 따른 TV 뉴스 앵커의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20-24.
- 유성희.(2014). 「남성용 드레스 셔츠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 청주대학교박사학위 논문, p.6.
- 유송옥.(2006). 「패션디자인」, 수학사, p.100.
- 이동훈.(2016). 「텔레비전 뉴스의 남녀 앵커 역할 차이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22.
- 이명희.(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 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제17권 제 3호, pp.367-368.
- 이선화.(2016). 「TV 뉴스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 스타일링 분석」,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22-40.
- 이소빈.(2013). 「방송사 뉴스 진행자의 이미지가 뉴스 채널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7.
- 이소영.(2011). 「토대의 위치 변화에 따른 업스타일 이미지와 세대별 선호도」, 광주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6.
- 이영미, 서미아.(1998). 네크라인과 헤어스타일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학회지』, 제6권 제3호, p.628.
- 이영미.(1997).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이 얼굴 이미지 및 형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54-56.
- 이영혜.(2005). 「TV뉴스 앵커의 이미지가 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5-11.
- 이윤재.(2014). 「공중파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방송인의 직무 만족 및 상생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8.
- 이정옥.(1980). 「의류학개론」, 학문사, p.182.
- 이지아.(2012). 「텔레비전 뉴스의 남녀 앵커 역할 차이에 대한 연구」, 건국

- 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14.
- 이현정.(2009). 「셔츠 칼라 패턴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13-17.
- 이혜원.(2007). 「의복관여와 헤어태도 및 헤어관여」, 경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13-16.
- 이효숙.(2004). 「패션이미지에 따른 의복 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 경성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5-19.
- 임원자.(2003). 「의복구성학」, 교문사, p.95.
- 장은영.(2017). 「TV프로그램 별 여성 아나운서 이미지에 대한 시청자 선호도 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21.
- 정선희.(2002). 「아나운서의 역할 변화에 관한 직종별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7.
- 진혜경.(2011). 「2000년대 TV뉴스 앵커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교안 개발」, 숙명여자대학교석사학위, p.13.
- 최희자.(2003). 「TV 뉴스 진행자의 메이크업 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8.
- 표지우.(2014). 「아나운서의 신뢰도·매력도, 방송사 이미지가 뉴스 프로그램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p.10-17.
- 하관수.(2012).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인식도 및 실태연구」, 한양대학교석사학위 논문, p.6.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성 아나운서 의상디테일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선호도 조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며, 각 문항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귀하의 생각대로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연구자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과정 백인영

지도교수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헤어디자인과 어수연 교수님

1. 귀하의 성별은 ? ( )

-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대는? ( )

-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3. 하루 평균 뉴스 시청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 )

- ①1시간 미만 ②1~2시간 ③2~3시간 ④3~4시간 ⑤4시간 이상

4. 귀하의 1일 평균 뉴스 시청 시간 때는 언제 입니까? ( )

- ①오전뉴스(오전6시~오전11시) ②오후뉴스(오후12시~오후5시)

- ③저녁뉴스(오후6시~오후11시) ④마감뉴스(오후11시 이후)

5. 귀하는 그날의 뉴스를 얻기 위해서 어느 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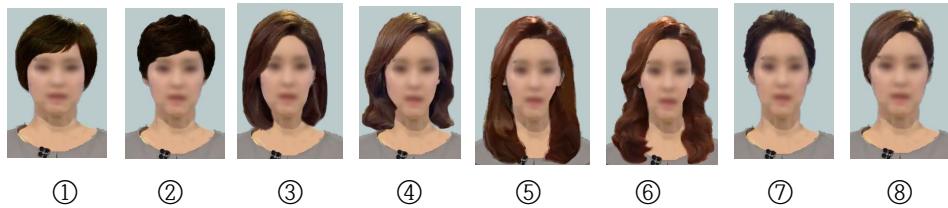
- ①TV ②라디오 ③신문 ④인터넷 ⑤스마트폰

6. 뉴스 진행 여성 아나운서의 외모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변화를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메이크업 ②헤어스타일 ③의상 ④악세서리 ⑤기타(제스츄어, 배경 등)

7. 뉴스 진행 여성 아나운서의 의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원피스 ②블라우스 ③테일러드 재킷 ④카라 셔츠 ⑤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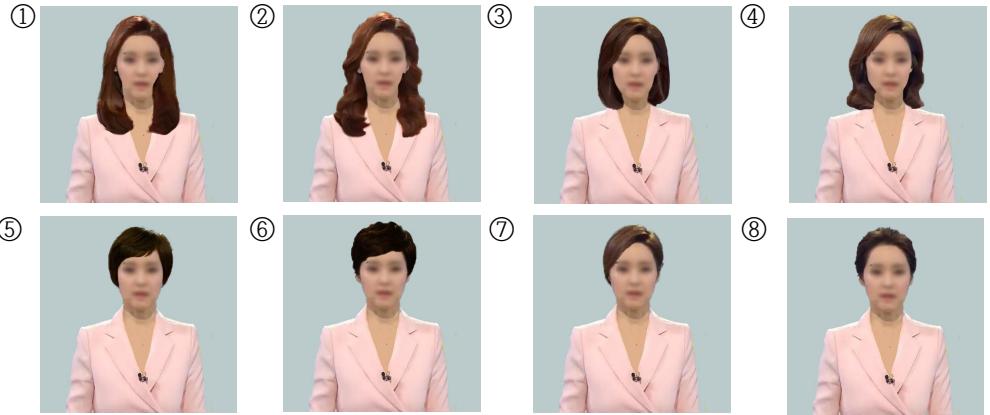
8. 뉴스 진행 여성 아나운서의 헤어스타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위의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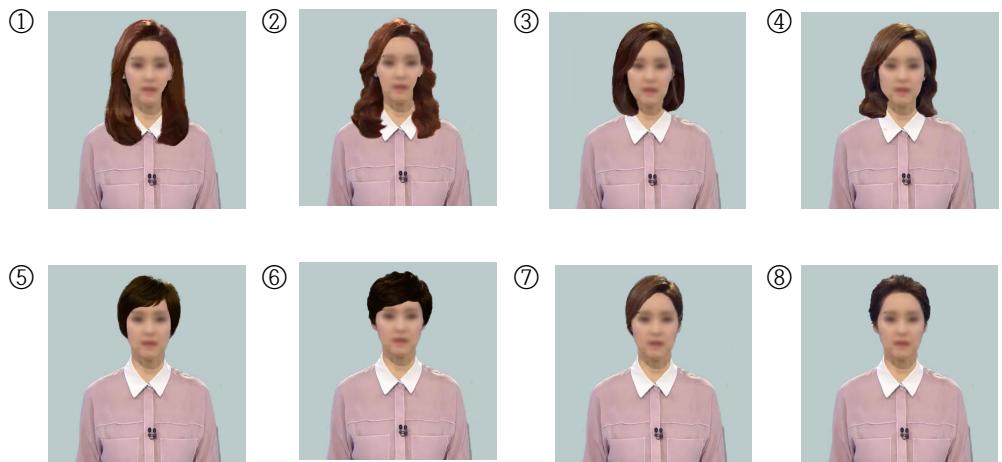
- ①숏 스트레이트 ②숏 웨이브 ③미디움 스트레이트 ④미디움 웨이브

- ⑤롱 스트레이트 ⑥롱 웨이브 ⑦이미를 들어낸 업스타일 ⑧이마를 덮은 업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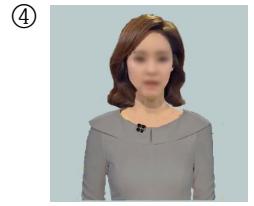
9. 다음 이미지 중 의상의 칼라형태와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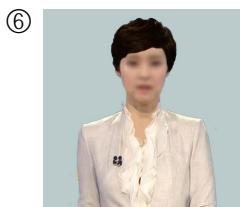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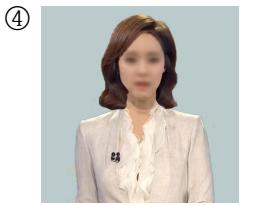
10. 다음 이미지 중 의상의 칼라형태와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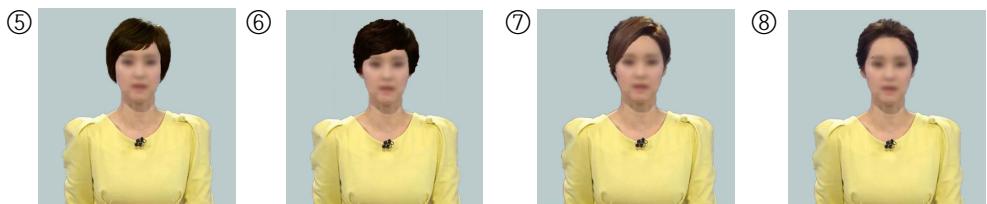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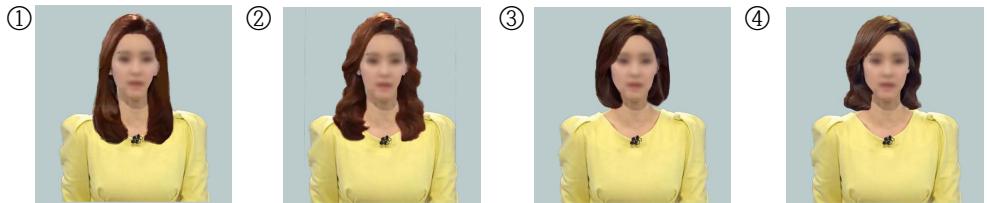
11. 다음 이미지 중 의상의 칼라형태와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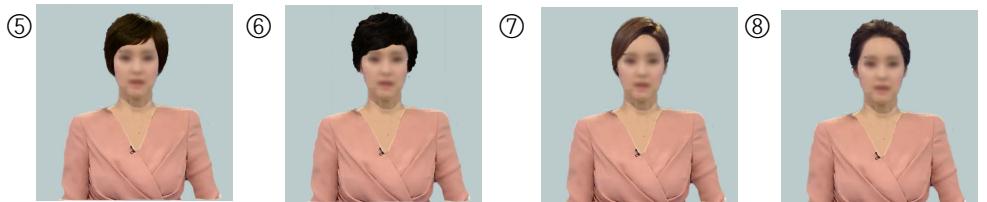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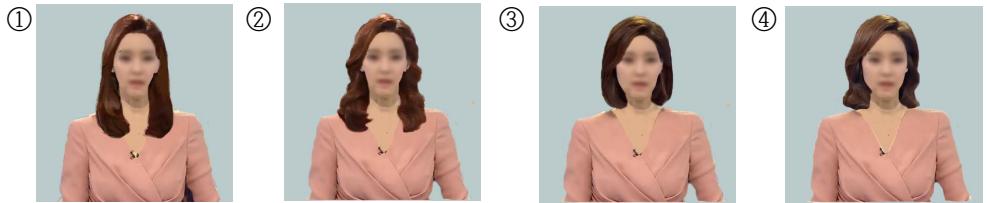
12. 다음 이미지 중 의상의 칼라형태와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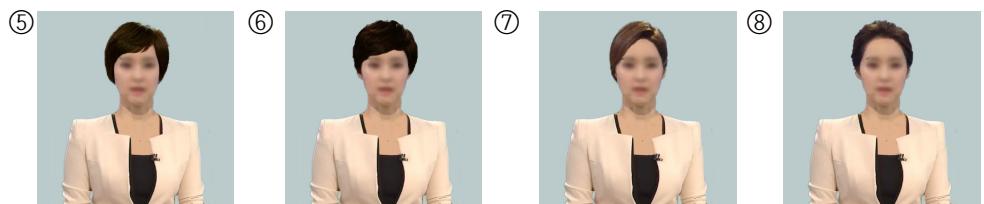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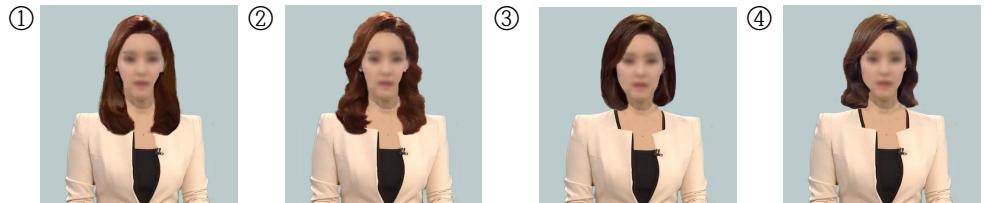
13. 다음 이미지 중 의상의 칼라형태와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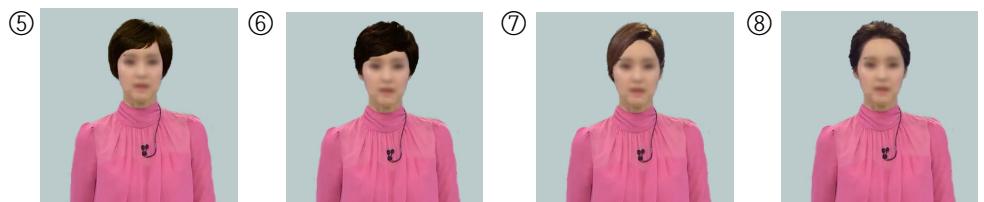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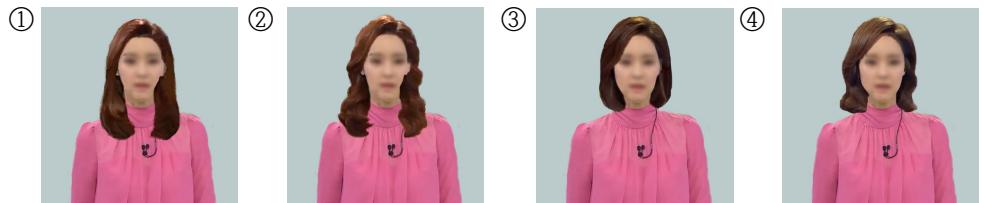
14. 다음 이미지 중 의상의 칼라형태와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15. 다음 이미지 중 의상의 칼라형태와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16. 다음 이미지 중 의상의 칼라형태와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 ABSTRACT

### Analysis of the Hairstyle of the Female News Anchor according to her Costume

Beak, In-Young

Major in Beauty Colo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In the case of the announcer's hairstyle, collar and neckline of the costume act as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hairstyle. The image is being produced as such. Considering that the image of the announcer affects the reliability of the news and audience ratings, we experimented with simulation to see the preference of hairstyle according to costum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hrough a survey using questionnaire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empirical studies to apply the results to the actual field.

The subjects were 360 men and women who were living in Seoul. 360 copies of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357 copies excluding 3 invalid answer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coded and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23.0. Frequency analysis and crossover analysis (Chi-square) were used, and Fisher's test was performed for accurate verification. The analyzed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survey of the hairstyle preference according to the collar and neckline of the costume, it was found that tailored collar costume would give the image of the suit representing a tidy and decent feel. It was also found that stable and feminine look up style hair, which has covered forehead, could add to the sense of security and confidence. But among 20s long straight hair was preferred.

Although the shirt collar cloth looks similar to a shirt and the collar is wrapped around the neck, so it can be seen as stuffy, but neat and clean medium straight style can help to produce lightweight tidiness. Considering i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ference for short hairstyles was indicated at all ages.

Faraway collar's costume features relatively far distance between neck and collar unlike other collars, so the neck part is much exposed and there is no decoration. If the hair is short with this costume, it can give the feeling of emptiness. Considering this, it goes well with long hair such as straight hair. However, among people over 50 preferred tidy look medium straight hair style.

The costume of a cascade collar has many frills in the collar

area, so that the neck area can be overly complicated or vulgar. Hair styles such as medium straight or up-style can help to create elegant and sophisticated images by compromising the splendor of the collar.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hort hairstyles were preferred at all ages.

Round neckline costumes give a soft, curvy, gentle, cute and docile image, so formal hairstyle may not be a good match with the costume. With natural long hair, it can be presented in a feminine and friendly style. 20s and 30s preferred long hairstyle, while those in their 40s and 50s preferred medium hairstyle. It was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by age group.

V neckline costumes may exaggerate the body size or may look as over exposure because of deep cut, so that the hairstyle can be directed from the front to compensate the absence of the neck area and to distract the gaze from the chest.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e results showed favorable long hairstyles at all ages.

Although square neckline costumes may give strong impression with a solid rectangle, but it seems to be able to compensate for the sharp, hard-looking part of the costume with the curves of a medium wave of hair style. The results showed that wave style was preferred at all ages except 40s.

In high neckline costume, the neckline formed close to the face. Therefore, it can give a stuffy image if the length of the hair is only a little longer. Short straight hair or up-style with forehead uncovered not exceeding the chin line is suitable. It is desirable to avoid waves because they may make you look older. Considering

this, all age groups showed the same result.

The conventional announcer hairstyle has been fixed as bobbed hair, which was a symbol of neatness and tidiness in any outfit, and the width of the costume was also limited. But it is changed now. As the choice of costumes is diversified and the resulting hairstyle is also free, they can appeal to the audience with diverse images while keeping reliability. We can see that the harmony with the costume matches with the preference in many ways, and when the costume and hairstyle interact and harmonize, we can feel reliability from the announcer.

The researcher analyzed costumes and hair styles of female announcers delivering news only. As the activities of announcers have been diversified, it is recommended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ostume details and hair style as well as relationship with costume color of announcers who work at entertainment, current affairs and sports programs. It is recommended to continue studying the image of announcers as one of the trends, and to use it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 technical aspect.

**【Keywords】** Female Announcer, Costume, Hairstyle, Neckline, Collar